

빌립보서  
#C2606  
Pastor Chuck Smith

1 장

Now, that we might continue to grow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let us turn to Philippians 1.

Paul the apostle was arrested in Jerusalem, held in prison in Caesarea for two years until he appealed to Caesar and was brought as a prisoner to Caesar in Rome, in order that he might appear before Caesar and appeal his case. While Paul was in Rome for two years awaiting his appearance before Caesar, he was under house arrest. He was able to rent his own quarters, however, twenty-four hours a day he was chained to one of the Roman guards. There were in Rome some ten thousand elite soldiers who had been appointed as the imperial guard and whose chief duty was the protection of the emperor in Rome. One of these men were chained to Paul on shifts, twenty-four hours a day, for two years. Paul saw that as a tremendous opportunity to witness. They can't get away, and as the result of Paul's witnessing to these men, many of them of Caesar's household were brought to the saving knowledge of Jesus Christ. Quite a revival there in Rome while Paul was there awaiting his appearance before Caesar.

이제,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 장을 펴시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이사 앞에서 자신의 사건을 항소하려고 가이사에게 항소했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죄수로 끌려올때까지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 로마에서 2년간 기다리고 있는동안, 바울은 가옥 연금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구할수도 있었으나, 하루 24시간씩 로마의 한 호위병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왕의 호위대로 임명받은 약 만명의 정예부대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주된 임무는 로마황제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 중 한명이 교대로 하루 24시간, 2년동안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엄청난 전도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으므로, 바울의 전도로 인해 많은 가이사의 부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앞에 서기를 기다리는 동안 로마에서는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The church in Philippi took up an offering for him and sent him a very generous offering. It was brought to him by Epaphroditus, who on the way became extremely ill and almost died, but he brought to Paul this gift from the hearts of those in Philippi, and basically this letter that Paul writes to them from the prison in Rome is a letter of thanksgiving and gratitude for the money that they had sent to him by Epaphroditus. And so, that really was the occasion of Paul's writing this epistle. It is written not as from an apostle to the church as are most of Paul epistles, but it is written as a letter from friend to friend. There is a very warm, friendly feeling through the whole epistle; it is interesting that the tone of the epistle is one of extreme joy and rejoicing. Interesting in the fact that during the

time that Paul was doing all of this rejoicing, he was chained to a Roman guard in a Roman prison. Some of you perhaps visit Rome on occasion and were led into the Mamertin prison where tradition says Paul was held. It isn't a very attractive place; it is sort of under ground, the light comes in from a window up above, but yet, Paul always had the light within him, and thus, as he declares, "I have learned in whatever state I am in to therewith be content. I know how to abound. I know how to be abased. I'm content because my contentment does not lie in my circumstances. My contentment lies in my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and that cannot change. My circumstances may change, I may be in tough physical circumstances, but my contentment isn't in that. My contentment is in Jesus." And it is important that we also learn to find our contentment in Jesus Christ, because then we can learn whatever our condition is to be content.

(이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정성스러운 헌금을 모금하여 보냈습니다. 이 헌금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어지게 되었는데, 그가 도중에 심하게 아파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바울에게 무사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받은 헌금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동기입니다. 사도로서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친구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서신 전체에서 따뜻하고 정감이 느껴집니다. 이 서신에서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동안, 그는 로마군사와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로마를 방문했을 당시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Marrertin** 감옥을 가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 좋은 곳이 아니며, 지하에다 빛도 높은 창문으로 들어 오지만, 바울은 자신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함을 배웠노라... 매일줄도 알고, 농일줄도 안다... 나의 만족이 환경속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변치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속에서 오는 것이다... 나의 환경은 변할 수도 있고, 힘든 육체적 환경속에 있을수도 있으나 그것은 나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나의 만족은 예수안에 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하기를 배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Paul opens this epistle, and along with the little letter to Philemon and 1 Thessalonians, it's the only epistle where he does not begin by the affirmation of his apostleship. Usually, it is, "Paul an apostle by the will of God." But he is writing now as a friend to a friend.

*Paul and Timothy, the servants of Jesus Christ (1:1),*

The word *servant* here in Greek is *doulos*, which is bondsslave.

Now, there was a phrase concerning the bondslaves of Jesus Christ and that phrase went, "To serve Him is to reign as king." So, Paul a servant, but yet, to serve Jesus is to reign as a king, to be his bondsslave.

Now, the word *doulos*, bondsslave is more than just a servant. A servant was a person who was hired who had the freedom if he didn't like his job to quit and find a job someplace else. Not so with a bondsslave. Like it or not, you were the

property of your owner. The servant could come and go as he pleased, not the bondsman. Bond slavery was something that was for life. Paul the apostle, the bondsman, Paul and Timothy bondsmen,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1:1)*

빌립보서는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더불어 바울이 서두에 사도임을 명시하지 않은 유일한 서신입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서신은 친구가 친구에게 쓰는 편지형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1:1)**

종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둘로스, 즉 **종** 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곧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왕이신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로스, 즉 종은 하인보다 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인은 고용된 사람이고 그가 자기의 일이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지만, 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종든지 싫든지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인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오고갈 수 있으나, 종은 그렇지 못합니다. 종 살이는 그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요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1:1)**

The word *saints* has come under a lot of abuse. We've lost the sort of meaning of the word; the word comes from the Greek word *hagios*, which means *holy*, and so really, he is writing to those who are consecrated. A lot of times you read, "Unto the saints," and you say, "Oh, this don't apply to me; I'm surely no saint." But it is unto those who are consecrated to Jesus Christ. And so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 *saint*, holy or consecrated.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which are at Philippi, with the bishops [overseers] and deacons [workers] (1:1):*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남용되었고,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하기오스 (**Hagios**) 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며, 바울은 실제로 성별된 이들에게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에게” 라는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오, 이것은 나에게 적용이 안돼. 나는 확실히 성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의 성도는 거룩하다, 혹은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1)**

I go to the Greek word themselves to translate them so that we get the...again bishops, we think of some guy who was over a whole bunch of churches. But they were the overseers within the local church, and the deacons were the workers. Those workers within the church.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흔히 감독이라고하면, 여러교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실제로는 지교회안에서의 감독들을 말하며, 집사들도 교회안에서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You remember Philippi was the first place Paul came to when he brought the gospel to Europe. He was in Troas. He received the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aying, "Come over and help us," and Paul immediately went down, caught a ship to Macedonia. They came to Philippi, and there Paul found a group of women who were worshipping on Saturday out by the river. They were Jews.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에 처음으로 온 곳입니다. 그가 드로아에 있을때,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 곧장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향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 바울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토요일에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Now, this means that there was not a large Jewish community in Philippi. For where in a community they have ten adult Jewish males, they had the obligation to build a synagogue, but if there wasn't ten adult Jewish males, then they usually met in an outdoor area, usually by a river or a place of beauty and all. And so, the indication is that there were not many Jews in Philippi, and thus, meeting by the river. Paul went out and met with the women that were there, and he shared Christ and many of them received. He started a work there in Philippi. He wasn't able to minister very long because the Jews who found out that the women were converted began to stir up trouble. They had Paul arrested. He was beaten. He was thrown into the dungeon where he and Silas at the midnight hour were singing and praising the Lord, when suddenly, the prison was shaken by an earthquake and the doors were opened and they were freed. And the jailer, realizing that awakening from his sleep and seeing what had happened, took his sword and was ready to kill himself, and Paul said, "Do yourself no harm. We are all here."

그것은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동네에 유대인 남자 열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할 의무가 있는데, 열명이 안되면 주로 강가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야외에서 모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얼마되지 않아 강가에서 모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나가서 거기 있는 여성들을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들이 영접하게 되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유대인들이 개종된 여성들이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하여 그의 사역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한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정신을 차려 되어진 일을 보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말하기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습니다.

You see, under the Roman rule if you were a guard and your prisoners escaped, then you had to take the penalty of the prisoners. So, better to commit suicide, really, than to face the wrath of the Roman justice, having lost the prisoners that were entrusted to you.

And so the man came in to Paul trembling, and he said,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And Paul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And so he took Paul home and washed the caked blood off of his back as a result of the beating, and then he gave him something to eat. Paul shared with the family, and they all received Jesus Christ and were all baptized.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church of Philippi.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자신이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했을 경우, 본인이 그 죄수들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죄수들을 잃고 로마법원의 징벌을 받는 것 보다 차라리 자결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떨며 다가와, “선생님, 어찌하면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자,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는 곧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매를 맞아 등에 생긴 상처를 닦아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울은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온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립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Now the magistrates of the city, those who had arrested Paul were responsible for that, they came and said, "Let him go. We don't really have charges, so just let him go." And Paul said, "Hey, wait a minute. I am a Roman citizen and I have been beaten without any charges being filed. There has been an injustice here." Philippi was one of the main Roman cities. It was supposed to have been a model of Roman justice, and so he said, "They think they are just going to send me away. Let them come down; let the mayor come down himself and pardon me, you know, and let me go." And they went back and they said, "Did you know that they are Roman citizens?" "Oh no," and he knew that he had blown it. And so, he came down and said, "Please would you get out of town. Just go, you know we are sorry, just go."

Now, from that small beginning the Spirit of God did a work. The church had grown to the place where they had to have overseers; they had deacons and administrators. The work of God had expanded, and they had taken up a generous offering for Paul and sent it to him. And so, from that early beginning God began a good work, and he did really perform a very, really special work there in Philippi. So to the overseers and the worker,

*Grace be unto you, and peace (1:2),*

한편, 바울을 붙잡은 도시의 상관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를 놓아주자. 별다른 죄가 없으니 놓아주자.” 고 하자, 바울은 “잠깐만, 나는 로마시민이고,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고 고초를 당했는데, 이는 불공평한 재판이었다.” 빌립보는 로마 정의의 표본이 되는 중요한 도시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를 그냥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들과 시장이 직접와서 사과하고 나를 보내라.”고 하자, 그들이 돌아가서 말하기를 “저들이 로마시민인줄 자네는 알았는가?”, “아니!” 하며, 자신들이 크게 잘못된것을 알고 바울에게 와서, “제발 이 도시를 떠나시오. 우리가 잘못했으니, 당장 떠나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감독들이 있어야 할만큼 부흥했고, 집사들과 관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로 더 확장되어, 그들이 후히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시작부터 선한일을 이루시고, 빌립보에서 아주 특별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1:2)

Now, we have come across these Siamese twins many times in the New Testament, and they are typical Pauline salutations as he opens his epistle so often with this, "Grace and peace be un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1:2).*

Again, I would like to emphasize, and I don't think we can too much, the fact that the Lord is not His name; it is His title. And we should not consider it or think of it as a name. We are talking of relationship when we say *the Lord*. Jesus is His name. As we were singing, "His name is Jesus, Jesus, sad hearts weep no more." His name is Jesus, or in the Hebrew, Jehoshua. But Lord is His title, and if we use the title of Lord, then that does signify that we take the position with Paul as a bonds slave. It's talking of relationship from our Lord Jesus Christ.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바울식의 안부인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써... (1:2)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생각해서는 아됩니다. 우리가 “주”라고 할 때는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픈 마음들이 더 울지 않으리...”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시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주”는 명칭이고, 우리가 주라 부를때, 바울과 같이 주님의 노예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I thank my God upon every remembrance of you (1:3),*

So Paul, every time he remembered the work of God there in Philippi, was thanking God for them.

John in writing his epistle sai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know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ruth" (3 John 4). I think that that can be said of the heart of every minister. The greatest joy that can come to any minister is to know that those

who are really the children in the faith as the result of their ministry continue to walk in the truth.

###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3)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삼 1:4) 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목회에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꾸준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Being in the ministry has tremendous rewards, and it is just thrilling to see the work that God does in various areas. This morning, as I was at the back door greeting the people as they were departing, there was a lady with her husband there, and their daughter, and her husband. As they approached me, I could see tears just welling up in their eyes. As they shook my hand, they said, "We are from New York and we listen to your radio program. And we have started a Bible study in our home, and we listen to your tapes and God is just blessing tremendously. We have so many people that are coming and being blessed through the word of God, and what a thrill for us to meet you and to be here today." As tears just began to stream down their face. And I tell you, you don't think that's not rewarding, to just see the fruit of the ministry. How you thank God for the work that He is doing. How you thank God for the privilege of being His instrument through which He might work.

여러방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너무도 흥분되며, 그것이 목회생활에서 크나 큰 보람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눌 때, 한 여성도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다가와 눈물이 걸썩하여 악수를 하며 제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뉴욕에서 왔는데, 목사님의 라디오 방송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목사님의 설교테이프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을 이곳에서 뵈니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의 열매를 보는 보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And so Paul, God's instrument, is now giving thanks unto God for the report that comes from Philippi of their continuance in the walk and in the faith. Every time he remembered them, he would say, "Oh, thank God." Every time I think of you, I just thank God for the work that He is doing by His Spirit.

*Always in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all making request with joy*

(1:4),

So he is thanking God, praying for them always, but there is always a certain joyfulness involved with it because of the work that God is doing there. And he is thanking God for your fellow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4)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안에서 서로 교제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Now that fellowship, ideal fellowship, the koinonia, is that oneness in the gospel, and no doubt also in this case refers to the support that they had given to Paul through the years. As he was writing to the Galatians, he said that they who are taught in the word ought to communicate unto them that teach in all good things. So, that the church in Philippi had been faithfully supporting Paul through the years, and so there was that oneness, the sharing, and you remember in the early church, if anyone had anything, they sold it and they brought it and laid it at the apostles feet, and they had all things in koinonia. This is the same Greek word here. There was just that sharing together of the welfare of their resources with Paul.

바로 그 교제, 이상적인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복음에 하나됨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바울을 수년동안 도왔던 것을 말하는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오랫동안 성실히 바울을 돕고, 서로 하나되어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모든 것을 코이노니아로 가졌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자원을 바울과 함께 서로 나누었습니다.

*For your fellowship [or oneness, a communion]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that he had been there in Philippi] until now [even to the present time]; being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ich hath begun a good work in you will perform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1:5-6):*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에 거한 날부터) 이제까지 (현재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 (하나됨, 혹은 **친교**)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 (1:5-6)

Which is, of course, the day in which Christ comes. The day that Christ comes for His church. I am confident that God is able to just continue the work that He started. Now, a lot of times,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at confidence.

In the book of Hebrews, Jesus is called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And we have got to realize what God has begun He is going to finish. He is not like us. He doesn't start a lot of projects that He doesn't finish. By virtue of the fact that God has begun a work in my life, I am confident that God is going to complete that



work in my life. And Paul said, "We are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o has begun the good work in you will continue to perform it, unto the day that Jesus comes" (Philippians 1:6). I have that confidence.

There is another scripture that says the Lord will perfect that which concerns you. The word *perfect* means complete. God is going to complete those things that concern you. He is going to complete that work of His Spirit within your life. He has begun it. He will finish it. He is the author and the finisher.

물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다시오실 그날을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해 놓고 다 끝내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에 힘입어, 그분이 또한 완성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너희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하노라. (1:6)" 고 말했듯이, 저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구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는 시작하신 분이시며 끝내실 분이십니다.

*Even as it meet [necessary] for me to think this of you all, because I have you in my heart; inasmuch as both in my bonds, and in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of the gospel, ye all are partakers of my grace (1:7).*

So, you see the personal nature of this letter. It's really from Paul's heart to them as he just opens up and bears his heart to them, and again that oneness that they share together, for they are partakers with Paul of the grace of God. And they are sharing with him, who at this time is in bonds. He is in prison because of his defense of the gospel, and so they are sharing with him through these various experiences.

*For God is my record, how greatly I long after you all in the bowels [compassion] of Jesus Christ (1:8).*

Paul said, "That love of Christ constrains me, I long for you with a compassion that Jesus Christ has put in my heart for you."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1:7)

여기서, 사적인 성향의 편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명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1:8)**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너희를 향한 **연민**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고 했습니다.

*And this 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 yet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in all judgment (1:9);*

Now, Paul said he thanked God for the fellowship that they had together, but he also prayed for them, and this is Paul's prayer: that thei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all knowledge.

You know that there is a phrase, to know Him is to love Him. The reason why Jesus said, "Learn of Me," is that He wants you to know how much He loves you. Learn of Him, learn of how much He loves you, because Jesus knows the more you know Him, the more you will know His love for you and the more you know His love for you, the more response you will have towards that love in your loving Him. So that you might abound more and more in that love of Christ as you gain the knowledge of that love.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9)**

바울은 그들과 함께한 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알수록 당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수록 당신이 그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That ye may approve things that are excellent; that ye may be sincere and without offense till the day of Christ (1:10);*

Again, the reference to the coming of Jesus Christ. Now, He is able to keep you unto the day that He comes. And this is how Paul wants them to be: growing more and more in their love and in their knowledge that they might approve or live after those things which are excellent and be sincere.

The word *sincere*, of course, comes from the Latin word *sincere*; two words actually, *sin*, without, and *cere* is wax. Now, during the days of Rome there were a lot of artisans. Everybody was anybody who could find the hammer and the chisel and were carving away on marble, and throughout the old world, I mean, you could find all kinds of statues. You go to the museums and just row after row after row of marble statues, and there was just something that was very common in those days, the working in marble.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0)

여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바입니다: 사랑과 지식에 더욱 더 자라서 지극히 훌륭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단어는 라틴어 *sincere* 에서 나왔습니다; *sin* (없이) 와 *cere* (wax, 왁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과거 로마시대엔 많은 기술공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망치와 정을 가졌으면, 대리석을 깎아 조각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 보시면 많은 대리석상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Now, in working in marble, not everyone is perfect. And it might be that you were, you know, trying to shape the nose on the statue that you were making and you slipped and you popped the nose off of the thing. Well, they became extremely clever. They would take the ground marble, mix it with wax, and they could work it out and it could put on a nose out of wax that looks so genuine you couldn't tell it. You would go down to the store, you would see this lovely statue, and say, "Oh, I like that one. I want that one in our entry hall." So you buy this statue and you take it home and put it in your entry hall, and then those hot summer days would come and you would come walking into the house, and the nose had melted and run down over the lips, and you knew it was wax. So the Latin word *sincere*, without wax, without phoniness, genuine. And that's the way Paul wanted them to be: genuine in their faith, no phoniness to it.

하지만, 대리석으로 작업을 할때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론 코를 만들려고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때 사람들이 피를 내어 대리석 가루와 왁스를 섞어 코를 붙이면, 감쪽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멋진 조각상을 보고, "오, 저기있는 조각상이 보기 좋은데, 우리집 현관 입구에 놔야겠다" 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을 가져다가 현관에 놔더니 무더운 한 여름날, 집에 들어가다 코가 녹아 내려서 입술위에 붙어 있는것을 보고 그것이 왁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진실 (*sincere*) 이란, 왁스가 없는, 속임수가 없는, 꾸밈이 없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즉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Being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1:11),*

Now, the fruit of righteousness is love and joy and peace. Paul wanted them to be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filled with love, filled with joy, filled with peace.

*which are by Jesus Christ, unto the glory and praise of God. But I would ye should understand, brethren, that the things which happened unto me have fallen out rather unto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1:11-12);*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1:11)

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 사랑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화평도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11-12)

Now, they had been following Paul's career. They were aware of his arrest in Jerusalem. They were aware of his imprisonment in Caesarea, the two years as a political pawn. They were aware of his appeal to Caesar, and now they were aware of his imprisonment in Rome. Here is a man they highly respected. Here is a man they loved greatly. And to realize that he was really in prison on these trumped up charges, really with no basis. It seems like there was sort of a waste of talent. Paul had been so busy in going out and sharing the gospel, and now being in prison it seems like God has made a terrible mistake allowing this warrior of the cross to just be shut up in prison.

이제까지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힌 것과 [가이사랴에서 2년간 정치범으로 수배된 것](#),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한 것과 현재 로마에서 옥에 갇힌 것까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날조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아까운 인재가 썩고 있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도 바빴지만 지금은 옥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 군병을 감옥에 갇혀있게 하시는게 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A lot of times we do not understand why God has allowed certain things, and from our viewpoint God has made here a serious mistake. Do you ever think that God has made some mistakes in your lives? There were a lot of times I thought God has surely made a mistake now. My circumstances, my condition, surely this is a mistake. But Paul is assuring them now, what things have happened really God has been using him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It is marvelous to be able to see the hand of God, even in those places where I am at a personal disadvantage, things that I would not personally choose for myself, to always realize that God probably has His hand in this.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수 없을 때가 많고 우리의 시각으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대한 실수를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간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조건들이 정말 실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자기를 사용하신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는 선택하지 않을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The other day, Saturday, I started out of the house to come out here to the church, and suddenly I thought, "Oh, I have forgotten my glasses." So, I went back into the house to get my glasses and I didn't see them on the counter, and I realized they were in my pocket. It's what they call senility. It comes with old age. But as I was going back out to the car, the thought came to me, "I wonder if the Lord was sparing me from an accident." You know accidents happen with such precision, split-second timing, that just a moment's delay at this point could very well be protecting you from some accident down the road. So I said, "Thank you, Lord. You know things I don't know, and you are watching over even your dumb little sheep, and you are taking care of those who don't have enough sense to take care of themselves. Whatever it was, whatever purpose, thanks Lord! I appreciate You watching over me."

지난 토요일, 집을 나와 교회로 향하는데, 갑자기 “오, 안경을 잊었군.” 하며, 안경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갔는데, 선반에도 없고, 제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나이가 들면 오는 노화라고 하지요. 하지만, 다시 차로 가는 동안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사고로부터 보호하신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한 순간에 일어남으로 잠시 늦춰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피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하는 미련한 양같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무엇었던지, 무슨 목적이었던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it is important and it is good to realize that whatever happens to me is happening for a good purpose. God has a plan in mind for my life. So that Paul, as he said to the Roman church,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that love God" (Romans 8:28). Paul is seeing here the good that God is bringing forth from his imprisonment. He is wanting to encourage them who would be prone to question God or doubt God because this marvelous apostle is being wasted in prison. He was assuring them that God's hand and purpose are being accomplished by his imprisonment. "I want you to know that these things that have happened to me, have really happened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 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바울은 자신의 감옥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선을 베푸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까운 사도를 감옥에 내버려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의구심을 갖거나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힘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When Paul was being brought to Rome and went through that tremendous storm for over fourteen days there in the Mediterranean, he had warned the captain not to set sail. He said, "I perceive a real danger is going to come to us." But the captain told the Roman centurion, "What does that guy know about the seas. I am a captain. I have been on these seas all my life. He is a land lover and doesn't know anything. We can sail." So the centurion said, "Okay, sail." Then they got in that horrible storm where for fourteen days they did not see the sun or stars; the ship was tossed to and fro in the Mediterranean.

바울이 로마로 옮겨질 때 지중해에서 14 일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때, 바울은 선장에게 항해를 멈출 것을 경고하며, “우리 앞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라고 했지만, 선장은 백부장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바다에 대해 뭘 아느냐. 내가 선장이다. 내 평생을 바다에 있었다. 이 사람은 물에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계속 항해할 수 있다.” 백부장은 “좋다, 항해 하라”고 승낙했습니다. 그후 그들은 엄청난 풍랑을 만나 14 일간 해와 별을 보지 못했고 배는 지중해에서 이리저리 떠밀렸습니다.

The mast was broken. They had thrown out all their cargo. They had just really placed themselves, finally, at the mercies of the sea. Everyone was seasick and miserable, and after fourteen days of this, Paul stood up and told them, "I told you that you shouldn't have started out." I love those people. He said, "Be of good cheer. The angel of the Lord stood by me last night and told me that though the ship will be wrecked and destroyed, all of the lives will be saved."

돛대가 부러지자, 배의 짐을 바다에 다 내던지고, 그저 바다가 잠잠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멀미를 하고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4 일이 지난 후, 바울이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미 항해를 멈추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안심하라. 간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배는 부서지고 파손될지라도, 모든 사람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Well, the Lord wanted to reach the governor of the island of Malta, and that was just an unusual way of getting Paul to Malta. It wasn't on their planned journey, so God detoured them to Malta. There was no way Paul could have talked the captain in going to Malta. The Lord had souls on Malta that He wanted to reach, so Paul had really a great experience witnessing to the natives and a real revival started and, I am sure, a continuing work of God there on the island of Malta as the result of Paul's visit.

Now, this imprisonment, brought from Malta into Puteoli, on into Rome, and now in prison, but it is all happening for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So that my bonds in Christ are manifest in all of the palace [or the pretorium], and in all other places (1:13);*

주님께서 원하신것은 멜리테라는 섬의 족장을 만나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멜리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정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멜리테를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선장에게 멜리테에 들리자고 말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멜리테에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었고, 바울은 토인들에게 전도하는 큰 체험을 했고, 그 섬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멜리테에서 보디올리로, 그후 로마로,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이어졌지만,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13)**

Now, the palace would have been Nero's palace there in Rome. As we read in other accounts, many of Nero's servants came to know Jesus Christ.

*And many of the brethren in the Lord, waxing confident by my bonds, are much more bold to speak the word without fear (1:14).*

They see how Paul's testimony is so fearless, how Paul is leading so many of these imperial guards to Jesus Christ. And the boldness of Paul's witness and all emboldened many of them to also begin to really witness for the Lord and to witness boldly for the Lord. Paul said, "It has all happened for good. It is all working out. God is working in this whole thing. My imprisonments and my experiences really are furthering the work of the gospel."

Now he said,

*Some indeed preach Christ even of envy and strife; and some also of good will: The one preach Christ of contention, not sincerely, supposing to add affliction to my bonds (1:15-16):*

여기서 시위대란 로마에 있는 네로의 시위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읽은 바와같이 네로의 많은 부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1:14)**

그들은 바울의 간증이 담대하고, 얼마나 많은 시위대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전도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졌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간함과 경험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15-17)

Paul, because he was a dynamic leader and a strong leader, had his enemies as well as his friends. That is the price of leadership. Just the very fact that God is using you is going to create enmity, jealousy, animosity, in the hearts of people. Paul was no exception. There were those who were jealous of Paul's ministry and what God was doing through Paul. They thought to take advantage of the fact he is in bonds. They are going to go out and they are going to try and do their work, out of contention. Their motive was contention, rivalry; rivalry against Paul, building up their own little flock or whatever. Their motives were really wrong in what they were doing, but the very fact that they were doing it, Paul rejoiced.

역동적이고 강한 지도자였던 바울에게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치루는 댓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신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대감과 질투와 증오심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들을 질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간혀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쟁심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경쟁심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자신들의 양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동기는 옳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just a tremendous example of the true Christian minister. He doesn't care who is getting the credit; all he cares is that the work of Christ is being accomplished. So God is blessing the Baptist church and it's bursting at the seams; praise the Lord! The Spirit of God is moving in the hearts of those people. Rather than feeling jealous or competitive, rather than saying, "I don't know why God would bless them when we are so much better than they are." You rejoice that God is working and that the work of God is being accomplished. Even if a person comes in with wrong motivations, and they say, "I don't like that Chuck Smith. I am bitter at him. I am going to rip off a part of his flock. We're going to establish our ministry right down the block, and we are going to pick up the disgruntles and everyone else that comes out of there." Praise the Lord people are being ministered to. They are disgruntled with me. They won't come here anymore. Well, bless God there is a place for the disgruntles to meet.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회자의 훌륭한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누가 인정을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례교회를 축복하시니 확장되어 나갑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질투하고 경쟁하며, “우리가 더 나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축복하시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기뻐해야겠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난 척 스미스가 싫어. 그의 교인들을 빼앗아 올거야. 바로 옆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불만이 많은 교인들을 다 모아야겠다.”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게된것을 주님께 감사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불만이 있어서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테니까요. 불만있는 교인들이 갈 곳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Christ is being preached. The motive may not be right within their hearts, but that doesn't matter. Paul said, "To me I am thrilled that the work of God is spreading in this community." Some of them have wrong motives, contentions, really trying to add to Paul's afflictions.

*But the other of love, knowing that I am set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 What then? notwithstanding, every way, whether in pretense, or in truth, Christ is preached; and I therein do rejoice, yea, and will rejoice (1:17-18).*

So beautiful!

*According to my earnest expectation and my hope, that in nothing I shall be ashamed, but that with all boldness, as always, so now also Christ shall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it be by life, or by death (1:20).*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속에 동기는 옳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이 지역에 전파되는 것이 내게 전율을 느끼게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동기와, 경쟁심으로 바울의 고통을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18)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파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1:20)

At this point, Paul was facing Caesar Nero, and he really did not know whether or not he would receive the sentence of death from Nero. Now, he knew that Nero had a general opposition to the preach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He knew that Nero saw Jesus Christ as a threat. Nero had ordered that the people confess that Caesar is Lord. Those that refused to confess that Caesar was Lord would be put to death. Paul was going to be facing now this little tyrant. He says, "Pray for me that I might be as bold as I have always been, not going to back down now in this situation, just because I am going to be facing this tyrant Caesar. My expectation, my hope that I will not be ashamed, that I will speak the truth boldly, though the consequence may be my head."

이 시점에서, 바울은 **가이사 네로** 앞에 서서, 사형을 선고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네로가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로는 가이사를 주로 시인하도록 명령했고,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폭군을 마주 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폭군 가이사를 만나게 될테니 내가 폭군 가이사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기를 기도해 주시오. 나의 기대와 소망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하여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It is interesting from a historical standpoint that Paul appeared before Caesar Nero twice. Once, on his appeal in Caesarea, he had appealed to Caesar, and the first time Paul appeared, Caesar Nero set him free. The charges were baseless. Paul was set free. A couple of years later he was rearrested and brought back to Rome and Caesar Nero ordered him beheaded. So, Paul died a martyr death and he was beheaded by the edict of Caesar Nero. But, as you look at history, an interesting thing: number one, we know that Jesus had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ere going to be hailed before the magistrates and before kings. But He said, "Don't take any forethought what you are going to say because in that hour the Holy Spirit will give you the words, and these things will turn for your testimony, or the appearances will give you an opportunity to testif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o, as you read Paul's defenses before the judges and before the kings, he appeared before King Agrippa; he appeared before Felix and before Festus. On every occasion Paul took the occasion to testify, to tell of the work of God's Spirit in his life, and he witnessed to his being born again by the power of Jesus Christ. Every time that he appeared before any of these magistrates, it was just to Paul an opportunity to testify for Jesus Christ. The higher the position of the person before whom Paul was appearing, the more fervent was Paul's testimony, the more earnest was Paul in his endeavor to convert the person, because Paul always thought, "Wow, with the influence and position this guy has, think of what it could do for the gospel if he were saved."

바울이 아그립과 왕과 벨릭스와 베스도등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기회로 삼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증거했습니다. 매번 총독들앞에 설 때마다 그것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힘을 다해 증거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와,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When he appeared before King Agrippa, man, did he ever lay on a heavy testimony. When he was coming to the close, he said, "Agrippa, do you believe the scriptures? I know you believe the scriptures." And he was really coming to the close, and Festus cried out, "Paul, you're crazy! You have been studying too hard. You have lost your mind." Paul came right back and began to press Agrippa, until

he said, "Wait a minute, you mean you are trying to convert me to be a Christian? You're trying to persuade me?" Paul said, "I sure wish you were, just like me, except I wouldn't wish you to have these bonds on you. But oh, how I wish you were."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 섰을 때도 너무나 중대한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왕이여, 당신은 성경말씀을 믿으시 나이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베스도는 소리치며,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한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아그립바왕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잠깐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네가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느냐?” 바울은, “나의 매임을 제외 하고는, 진정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aul appearing before Nero, don't you know he really turned it on. I mean, he felt no doubt, if I can convert Nero, think of what that will do for the gospel if the emperor becomes a Christian. I am sure he laid on the heaviest witness anybody has ever heard at any time in history when he got before Nero.

It is interesting as you study the history of Nero, up to this point in history, up to the point that Paul appeared before him, he was a fairly decent ruler. After Paul's appearance, there was a sudden and dramatic change in Nero's personality recorded in history. He became almost a mad man. In fact, many did think that he became insane. There is that likelihood that God, through Paul, was giving to Caesar Nero the opportunity of being saved and the testimony and the witness was so powerful, that in his rejection of that testimony, his complete rejection of Jesus Christ, that Caesar Nero at that point became demon possessed. There are certainly things in history to indicate demon possession in Caesar Nero, and also in the scriptures.

바울은 네로앞에 섰을때 그가 정말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의심의 여지도 없이 바울은,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며 이제까지 전도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네로 앞에서 더 열심히 힘껏 전도 했을것이 확실합니다.

네로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흥미있는 사실은, 네로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점잖은 통치자였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난 후, 네로의 성격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네로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바울의 간증과 증거가 너무도 강렬하여, 네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강한 거부가 그를 악령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역사와 성경에서 그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실들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Caesar Nero became a madman. In his persecution of the church, he became inhumane. They would tie Christians on posts in his garden, cover them with tar, and set them on fire to light his garden in the evening, as he would get in his chariot naked and race through the paths of his garden. Christians lighting them, torched there in the garden. It was inhumane and horrible.

It is an interesting study as you study carefully the history of Nero, and this dramatic change just about the time that Paul witnessed to him. He then, of course, burned Rome in his desire to build a new and greater Rome, one that would be named after him and leave his monument, and then blame the Christians. That was when Paul was recalled and arrested in Ephesus, and brought back to Rome, and then beheaded by Caesar Nero.

가이사 네로는 미친사람이 되어, 그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자신의 정원에 기둥으로 세워 그위에 코올타르를 바른후 불을 질러 저녁에 등불로 사용했고, 벌거벗은 채로 마차를 타고 뜰을 가로질러 달리는 등 잔인하고 참혹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네로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면 재미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바울이 그에게 전도했을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는 로마를 불태우고 새롭고 더 큰 도시를 재건하여 자신의 이름을 불히며 기념비를 만들려고 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 때가 바울이 예베소에서 소환되어서 붙잡혀 다시 로마로 이송되었고 그 후에 네로에 의해 사형당했을 당시입니다.

Now, whether or not Paul was writing it during the first imprisonment or second is not known for certain. It was probably the first, but even at this point, his outcome is uncertain. Paul expresses, "Hey, my desire is that Christ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I really don't care. I just want to live for the glory of Jesus Christ." "God forbid," he wrote, "that I should glory except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I am not looking for anything for myself; I am looking that my life will bring glory and honor to Christ. That Christ be magnifi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doesn't make any difference."

*For to me to live is Christ (1:21),*

바울이 첫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인지 두번째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으나, 아마도 첫번째 투옥 때 인것 같습니다만, 이 때였다손 치더라도 결과가 분명치 않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21)

He is the center of my existence. My life revolves around him.

Again, if you were to say, "To me to live," what would you have to say? To me to live is the Indy 500. To me to live is playing a guitar. To me to live is... And so many people are living for so many things. Paul said, "For me to live is Christ." Because he said for me to live is Christ, he can also say,

*and to die is gain (1:21).*

You can't say that if you are living for anything else. To me, to live is to be wealthy, to mass a fortune, and to die is to lose it all. To die is loss. You can only say to die is gain when you have lived your life for Jesus Christ. That is why if a person lives their life for Jesus Christ, we don't have to, and we should not, grieve over their death. We can grieve over our loss. We sorrow, but not as those who have no hope; we sorrow because we are going to miss them. But, we don't sorrow for them. We don't grieve for them. For if a person is living for Christ, to die is gain.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삶은 그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자동차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많은 이들이 갖가지의 많은 것들을 위해 삽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1:21)**

만일 여러분이 다른 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재물이다, 재산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것은 그것을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 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 슬퍼하지도, 슬퍼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애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사람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But if I live in the flesh [I really don'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now], this is the fruit of my labor: yet what I shall choose I wot not [I really don't know] (1:22).*

If you ask, "What would you choose, Paul? Do you want to live or die?" I really don't know. For he said,

*For I am in a strait betwixt two, having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which is far better (1:23):*

Now, if soul sleep was a legitimate doctrine, then Paul the apostle surely did not understand the doctrine. He would not then express himself this way concerning death. "I am in a strait betwixt two, having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asleep, awaiting the great day of the Lord. No, I have a desire to depart and to be with Christ." Paul's understanding that death would free his spirit from his body, that his spirit might immediately be with the Lord in Heaven.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나으나, 무엇을 택할지는 모르겠다. 삶과 죽음을 직면하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분명 원함은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우리는 육체를 떠나고자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벗고자 함이 이니요 오직 하늘의 몸으로 덧입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속에 있는 우리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불쌍한 일인가. 너무나 끔찍하고 막대한 손실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가 계속 육을 입고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1:24)**

"You need me. Now, I would like to go, my desire is to go and be with Christ, but you need me. I am torn, torn by your need of my continued ministry, and by my desire to be with the Lord." I think that that is always true, we are sort of in a strait betwixt two. When we think of the Lord and being with Him in heaven, "Oh, man, I love to be with the Lord." But yet, we look at our family and they still need us and the responsibility is all around us and we think, "They still need me." There is that torn feeling.

*And having this confidence, I know that I shall abide and continue with you all for your furtherance and joy of faith (1:25);*

“나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으나,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있다. 너희들을 위해 계속 나의 사역을 해야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하고픈 나의 욕망 으로 어찌할바를 모르겠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두 사이에 끼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땐, 주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소망하고, 가족들을 보면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책임이 있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1:25)**

So, Paul was confident at this point that he was going to be exonerated, which he was, and to continue for a little while yet with them.

*That your rejoicing may be more abundant in Jesus Christ for me by my coming to you again. Only let your conversation [manner of life] be as it becometh the gospel of Christ: that whether I come and see you, or else be absent [Now, if he takes my head], I may hear of your affairs, that ye stand fast in one spirit [Now, whether I stay in jail actually that when I hear of you, that this is what I'll hear: that you are standing fast in one spirit], with one mind striving together for the faith of the gospel (1:26–27);*

So the desire for the church: one faith, one mind, working together for the faith of the gospel.

이 시점에선 바울이 그들과 좀 더 함께할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홀가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삶의 자세)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사형 당하더라도)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내가 감옥에서 듣고자 하는 소식은: 일심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1:26-27)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소망은: 한 믿음, 한 마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And in nothing terrified by your adversaries: which is to them an evident token of perdition, but to you of salvation, and that of God. For unto you it is given in the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s sake (1:28-29);*

Wait a minute, I thought I heard an evangelist the other night saying that no Christian ever needed to suffer if he just had enough faith. Evidently, he didn't read Philippians 1. It is given on the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to suffer for His sake.

*Having the same conflict which ye saw in me, and now hear to be in me (1:30).*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1:28-29)

잠깐만, 지난번에 어느 부흥강사가 그리스도인은 믿음만 있으면 결코 고난을 당치 않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빌립보서 1 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1:30)





빌립보서  
#C2607  
Pastor Chuck Smith

2 장

*If there be therefore any consolation in Christ, if [there is] any comfort of love, if [there is] any fellowship of the Spirit, if [there is] any bowels [compassion] and mercies, fulfil ye my joy, that ye be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f one accord, of one mind (2:1-2).*

And so Paul's appeal to them now, a very powerful appeal: if there is any consolation in Christ, if there is any comfort in love, and surely there is consolation in Christ, how we are consoled by Him, how we are comforted in the love, and especially the time of death, the fellowship in the Spirit, the compassion and the mercy fulfill my joy. As John sai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the children walk in truth" (3 John 4). Fulfill my joy, that you be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f one accord and one mind.

*And let nothing be done through strife or vainglory; but in lowliness of mind let each esteem others better than themselves (2:3).*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1-2)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강한 간청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면과 사랑을 받습니까. 특히 죽음을 당했을 때, 성령과의 교제등,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삼 4)”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2:3)

You want to be great in God's kingdom? Learn to be the servant.

It is interesting to me, how that these words of Paul are so often disregarded by the church. I have shared with you before how my break came with the denomination, over the fact that they announced to the pastors that competition was carnal motivation, but we must realize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we minister to are carnal, and thus, have to be carnally motivated. So we have to use competition to motivate them. Well, competition is striving, because we were to call another pastor and challenge his church to an attendance contest. "We are going to strive with you to see who can have the largest attendance." And then the church that lost was going to have to treat the church that won to a dinner. And the church that won was going to be honored.

하나님의 왕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종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의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는 빈번히 등한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왜 교단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경쟁은 육신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목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신자들이므로 목회자들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시켜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다름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의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출석 교인수를 경쟁하여, “누가 제일 많은 출석 교인을 가질수 있는지 경쟁해보자.” 그리하여 진 교회는 이긴 교회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이긴 교회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You know, "We want to be first so we can be honored." Vainglory and strife, or striving for vainglory. And how many times, that is the motive that is being used with people within the church: get them into competition, get them into striving, and get them into vainglory. "We are going to put the names up here on the wall. In each windowpane we are going to inscribe your name. We are going to put stained glass in. The Lord has told me we should have stained glass windows, and you know, you can buy your window and put your name or the name of your loved one in a window." And everybody that comes, as they look down the window, they will see your name. Vainglory.

“우리가 높임받기 위해선 꼭 일등을 해야해.” 헛된 영광이며 헛된 노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것이 동기를 부여하여 교인들을 경쟁시키고, 다투게 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는 육신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벽에 부치려고 합니다. 스테인 유리 창문을 만드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테인 유리 창문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창문을 사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와서 창문을 볼때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보게 될것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Let nothing be done through strife and vainglory. Those are wrong motivations for serving God. But in lowliness of mind, just esteem others better than yourself.

*Look not every man on his own things, but every man also on the things of others [or the needs of others](2:4).*

Don't just look at your own needs, but look at the needs of others around you.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2:5):*

And God minister to us now by Your Spirit, because we are treading in the Holy of Holies. We are getting down to the heart now of the whole issue. The issue of Christianity: my attitudes, my attitudes toward myself and my attitudes towards others. What is the mental attitude that I have towards myself? What is my mental attitude towards others?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 잘못된 동기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2:4)

여러분이 필요만것 만 볼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살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5)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귀착합니다. 기독교의 문제: 나의 자세,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자세와 남을 향한 나의 자세. 내 자신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Do you know what he had the nerve to ask me to do? I told him I wanted to serve the Lord, and Romaine gave me a broom and told me to sweep the sidewalk. I hire people to sweep my sidewalks. Doesn't he know who I am? How much I have contributed to the church?"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2:6):*

He didn't grasp, have to grasp equality with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John 1:1). So being in the form of God, and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Now you talk about, "Hey, don't they know who I am? Don't they know how important I am? They didn't even offer to carry my suitcase. Don't they know?"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글쎄, 정신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빗자루를 주면서 교회마당을 쓸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집도 사람을 고용해서 치우는데, 내가 누군줄 모르는 가보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6)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 내 가방을 날라 주겠다는 제안도 안하다니. 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or in the Greek, emptied Himself], and took upon him the form of a servant, and was made in the likeness of men (2:7):*

Well, we see now the steps downward as He emptied Himself: starting with God, equal with God, and yet, He emptied Himself and He came in the form of a servant, and was made like men.

*And being found in fashion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2:8).*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2:7)**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 자기를 비울때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8)**

And so, from glory and equality with God to that cruel Roman cross, hanging there with the jeers and the anger of the crowd, despised and rejected by man. What a tremendous downward, I mean from the highest height, down to death on a cross, surrounded by murderers. That tremendous plunge Jesus was willing to take for you.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erefore God also hath highly exalted him (2:9),*

Now we see the steps out. For God said, "I will not leave your soul in hell, neither will I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Psalm 16:10). And God has highly exalted Him.

*and [He has] given him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of things in heaven, and things in earth, and things under the earth; and that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2:9-11).*

하나님과 동등됨과 영광에서부터 떠나 잔인한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때, 성난 군중들은 조소했고, 사람들로 부터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살인자들에게 둘러 싸인 십자가에서 죽음의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신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9)**

밖에서 이루어 지는 단계를 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 16:10).” 하나님이 그를 높히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2:9-11)

So from the glory to the glory, but the cross in between. He emptied Himself. Now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in Christ Jesus. That willingness to set aside what you are, to become a servant to others. Not esteeming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should, just considering yourself privileged to be a servant of Jesus Christ. "Humble thyself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shall lift you up" (James 4:10). Christ the example, humbling Himself, but wherefore God has also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a name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Jehoshua, every knee will one day is going to bow, every tongue one day is going to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그러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지만 십자가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지 말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약 4:10)” 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 곧 예호슈아 (**Jehoshua**), 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Now, you may not want to make that confession now. You may say that you are the lord of your own life.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My head is bloody but unbowed." One day you are going to confess Jesus Christ is the Lord. Those people who speak so despairingly of Him now, those people who still mock His name, those who use His name so carelessly in their profanity, those who have spoken out so adversely against Him, one day they too shall bow their knee, and they shall confess Jesus Christ is the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The problem is that in that day their confession will not be unto salvation. You see, Paul tells us that if we confess with our mouth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and believe in our hearts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we will be saved, for with the mouth man confesses unto salvation. But that will not be so in that day, the confession will not be to salvation. It will be of condemnation of themselves. "Yes, He is Lord. I was wrong in rejecting Him as Lord of my life."

당신이 지금은 그 고백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 머리에 피가 날지라도 머리 숙이지 않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분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나 아직까지 그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그분의 이름을 함부러 모독하는데 사용하는사람들이나, 그분을 거역하는 모든 이들이 어느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날에는 그들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The problem is that in that day their confession will not be unto salvation.)**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정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님으로서 그분을 거부하는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Wherefore, my beloved, as ye have always obeyed, not as in my presence only,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2:12):*

Now, unfortunately many people stop right there, and we get a tremendous exhortation on works and the importance of you working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And rather than working out your salvation, it is usually interpreted, "work for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and you're exhorted into all the works that you ought to be doing for God in order to be saved. And those who are emphasizing a "works" gospel, which is not a gospel, because you tell me I have to work to be saved, that is not good news, that is bad news. They use this text so often, but they don't go into the very next verse where He declares: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12)**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중단하여, 일에 더욱 비중을 두고,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놀라운 권고를 받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해석하여 구원 받기 위하여 모든 일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일의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으려면 내가 일해야 한다고 당신이 나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그들은 곧잘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2:13).*

That is what it is all about. You see, God said to Jeremiah when Israel had totally failed in the keeping of the law, "There is going to come a day, Jeremiah, when I am no longer going to write the law on these tables of stone, but I am going to write my law in the fleshly tablets of their heart." It is He who works in you to will.

How does God reveal His will to me? He reveals His will by the desires that He places in my heart, not the desires that I necessarily have in my heart that come from me. But He places in my heart His desires, so it is He that works in you both to will. God puts it in my heart to do something. God gives me the desire, the yearning to do a particular work, to go to a particular place. And I discover that that which I desire is actually God's revealing to my heart, that which He is wanting me to do. And so, He puts it in me to will, and then He gives me the capacity to do of His good pleasure.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13)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거역할 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더 이상 돌판에 율법을 쓰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대신 그들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내십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소원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를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를 하도록 주십니다. 그 일을 하기 원하는 소원, 또는 어떤 장소에 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타내셨다는것과 하나님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는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그의 뜻을 나의 의지로 주신다음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Several years ago I was supposed to speak in Ventura on a Sunday evening, and I decided to go up on Saturday and spend the night with my aunt in Santa Barbara. My Aunt Lois, in fact, who is now moved down into the area that we can be near her. And she made such fabulous enchiladas, and I called her and said, "Put the enchiladas on. I will be up for dinner, spend the night with you, and then I will come back to Ventura tomorrow night and speak." So, I took off for Santa Barbara. Heading up towards the Ventura freeway, when I got to Sunset Boulevard I thought, "Oh, this is such a beautiful day. I might as well drive along the coast, drive along Sunset Boulevard to Pacific Coast Highway. It is such a beautiful day I will just put the top down on my car, and I will cruise up through Malibu and go up Santa Barbara that way and just look at the ocean, because I love to stop up there at Point Magu and watch the surf come in and just the beauty of that drive."

몇년 전 저는 벤츄라 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이모님께서 산타 바바라에 사셨기에 토요일에 올라가 이모님댁에 묵은 후 주일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모님 로이스는 이 쪽으로 이사하셔서 우리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그 이모님은 멕시칸 음식 엔츄라다를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엔츄라다를 만들어서 제가 올라 가거든 저녁으로 주세요 거기서 자고 내일 저녁에 와서 말씀 전할께요” 라고 말했습니다. 산타 바바라로 가려고 벤츄라 고속도로로 향해서 가다가 썬셀 불루바드에 왔을때 생각 하기를 ‘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군. 썬셀 불루버드에 가서 해변도로를 타고 가는게 좋겠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의 뚜껑을 내리고 말리부를 지나서 산타바바라를 그길로 가면 바다를 볼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산타 무구에서 정지하여 파도가 밀려 오는것을 보며 아름답 다운 여행길을 즐길생각 이었습니다

And I thought, "I just want to go the coast." I am such a water nut, and just enjoy the beach. So, I wound all the way down Sunset Boulevard, and as I was winding down Sunset Boulevard, I thought, "My, I don't remember it being this far down Sunset to the Coast. I probably made a mistake. I probably should have stayed on the inland route. Oh, well."



그리고 생각하기를 “해안 길로 가고 싶다.” 나는 물을 너무 좋아하고 바닷가에 가기를 아주 즐겼습니다. 그래서 썬셀부루버드로 돌아서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가면서 “야, 썬셀볼루버드에서 해안 도로가 이렇게 멀다고 기억하지 않는데. 아마 내가 길을 잘 못던것같아. 아마 내가 안에 있는 선으로 갔어야 했는가봐. 할수 없지, 뭐.”

And as I pulled on to the Coast Highway, there was a couple there hitchhiking, and I felt rather selfish in this convertible all by myself and all, and here they are hitchhiking, and so I don't pick up hitchhikers as a rule, but I stopped and I picked them up. And I started to share with them about Jesus Christ. By the time we got to Ventura, we pulled over and they accepted the Lord. And I took them by the church where I would be speaking the next night, and I said, "Look, if you show up here tomorrow night, I will be glad to meet you." The fellow was looking for a job. He was a farmer, and he had been looking in Los Angeles for a job. I said, "They don't have any farms in Los Angeles." So I bid them farewell, drove on up to Santa Barbara, and like so many experiences, you think, "Well, probably I will never see them again."

해변도로를 들어설 즈음에, 낯선 부부가 차를 태워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당시 제 포장지붕의 차를 혼자만 타고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은 안태워 주기로 마음에 결정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태웠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고 벤츄라에 도달했을때에는 차를 도로가에 세운 다음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튿날 저녁에 내가 설교할 예배당 곁에 서 “보세요, 당신들이 내일 저녁에 여기에 오신다면 기쁘게 만날수 있을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였는데 로스앤젤스에서 직장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스에는 농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별을 고한후 산타바바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아마 다시 볼 수 없겠구나”고 생각했습니다.

But the next night when I was at the church speaking and I gave the invitation, they came forward to accept Jesus Christ publicly. And the man in the church, the elder who came down to pray with them, happened to be the foreman of the Del Mar Lymanair Ranch, and happened to be needing an extra hand. It had housing and everything else. So, they came up afterwards and they came up with Mr. Jenkins, and they said, "Oh, guess what has happened to us? This man who prayed with us, he is the foreman of this ranch." I knew that, and he had given them a job, and then I thought back yesterday, as I was driving up and I got that sudden inspiration, "Why not go by the coast," I realized it was He who puts it into my heart to will. That thought was actually planted by the Lord, because He knew that that couple from Montana, really desperate and in need, basically for a real experience with Jesus Christ, were waiting for someone to come and share the truth with them.

그러나 그 다음 날 저녁에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한후 초청했을때 그들은 앞으로 나와서 대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있는 남자 장로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내려왔으며 그분이 델마 라이마네어 렌치라는 농장에 감독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 일꾼이 한 사람 더 필요했습니다. 그곳은 숙식을 모두 해결해주는 농장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후에 그들이 올라와서 쟈킨씨를 만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분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셨는데 이 농장의 감독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 부부에게 일터를 준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운전할때 갑자기 “해안 도로를 타고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내 마음에 주신것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은 실제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생각이며 그 이유는 몬타나주에서 온 이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절실히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것입니다.

And so,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hen to do. He gives you the capacity to do, but He plants first of all the will in your heart. And this is the way that God leads us. So often it is by a sudden inspiration, a thought, an idea, God is working in you to will, and then to do. And so again, it is initiated by God.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but it is God who is actually working in you. It is God who has put that yearning in your heart. It is God that has given you that desire. And now God will work out the ways by which that might be fulfilled. For He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hen to do of His good pleasure.

그러므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행하도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갑작스런 영감과 생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만, 실제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쁜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So, the net result is that my pleasure is doing His pleasure because He put the desire in my heart to do it, and so it becomes, really, the desire of my heart or my life, and thus the pleasure of my life, and thus I can say with Jesus, "I delight to do thy will O Lord." Why? Because He has planted it in my heart. It is God who is working in you.

Therefore,

*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s and disputings (2:14):*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그 소원이 내 마음과 삶의 소원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14)**

Now, I have to confess that I don't always succeed in this particular injunction. There are certain tasks that I do that I catch myself murmuring. "I wonder where Romaine is, you know, I have to clean up this mess. Where is Romaine, you know, he is not around to clean up this mess." You know, and I think, "Hum, I have got better things to do than to sweep up this mess here, you know." And so I don't always pass with an "A" on this particular phase. I do catch myself at times murmuring over some of the pressures, over some of the things. But God is working in my heart in that. Because when I do things and I am murmuring, He usually speaks to me and says, "Why are you doing it?" And, of course, I have to respond, "I am doing it for You, Lord." And then He says, "Quit your murmuring, or quit doing it."

사실, 저는 이런 특수한 명령에서 잘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로메인은 어디갔지. 내가 이 쓰레기를 다 치워야하니. 도대체 로메인은 어디 있어. 그가 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흠, 나에겐 이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면에서는 A 학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일로 인해서 압력을 받을 때에도 불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제 속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제가 불평할 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왜 네가 그 일을 하느냐?” 하시면, 저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불평을 그치지 않으려면 그 일을 그만 두어라”고 하십니다.

You know, God doesn't want any griping service.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for the glory of God, and do it as unto the Lord, and 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 or disputing.

*That ye may be blameless and harmless, the sons of God, without rebuke,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nation [generation], among whom ye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holding forth the word of life; that I may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that I have not run in vain, neither labored in vain (2:15-16).*

하나님은 억지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에나 행동으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 하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2:15-16)

So, Paul is exhorting them on how they are to serve the Lord. And the effect of their service to the Lord is the rejoicing in the heart of Paul, realizing that his ministry to them has been an effective ministry, for he has brought them into the attitude and the mind of Christ, who was willing to step from His glory into this sin-cursed world to hang on a cross. Let this mind be in you. And when you see

the work and the effect of the work of God in the ministry in the hearts of the people, it creates great rejoicing. Paul said,

*Yea, and if I be offered [if they take my life] upon the sacrifice and service of your faith [if I die for this], I joy, and rejoice with you all (2:17).*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고, 영광을 버리고 죄많은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신 그리스도의 자세와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목회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크나 큰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17)**

I rejoice because of what God has done with you. I die happy knowing that God has worked in your life through my ministry.

*For the same cause also do ye joy, and rejoice with me (2:18).*

If they take my life, rejoice with me, don't weep.

*But I trust in the Lord Jesus to send Timothy shortly unto you, that I also may be of good comfort, when I know of your state. For I have no man likeminded, who will naturally care for your state (2:19-20).*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통해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알기에 죽어도 행복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18)**

만일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9-20)**

Now, this is very interesting statement of Paul, for he is sending Timothy because Timothy shares his heart, his burden. And Paul said, "I don't have any one else who really has the same heart that I have, for you and for the work." It is really very difficult to find someone who has the same heart as Paul the apostle. One who is willing to give himself so freely. One who is really looking so little for himself, but always looking for the needs and the welfare of others. It is hard to find that kind of a minister, one that is really so careful and circumspect about the things of the Lord. Paul said, "I really don't have anyone other than Timothy who has the same mind, the same heart and concern for your state as I have."

*For all seek their own, not the things which are Jesus Christ's (2:21).*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디모테가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그의 짐을 들어 줄수 있기에 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와 사역을 생각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돌보기 보다는 항상 남의 사정과 필요를 돌보며, 주님의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역자를 찾기 매우 힘듭니다. 바울은, “디모테 외에는 나와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너희 사정을 걱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1)

What sad indictment against the ministers, even those that were accompanying Paul, and with Paul. "I send Timothy because he has my heart for you; he cares for you as I do. Most everybody else really care for themselves more than they care for you. They are seeking their own welfare above your welfare." That is, the mind that was in Christ is not in them, who emptied Himself.

*But ye know the proof of him, that, as a son with the father, he hath served with me in the gospel. Him therefore I hope to send [him] presently [soon], so soon as I shall see how it will go with me (2:22-23).*

As soon as I am able to free him, I am going to send him to you.

*But I trust in the Lord that I also myself shall come shortly (2:24).*

바울과 함께 일하고 지낸 동역자들에 대한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디모테는 너희에 대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보는 것처럼 너희를 돌볼 것이기에 그를 보낸다. 다른 이들은 너희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돌보며, 자기의 유익을 더 찾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비우기까지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속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테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22-23)

그가 자유롭게 되는 대로 빨리 너희에게 보내겠다.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24)

You know, if Caesar lets me out of here, I hope that I will be able to come.

*Yet I supposed it necessary to send to you Epaphroditus, my brother, and companion in labor, and the fellow soldier, but your messenger, and he that ministered to my wants (2:25).*

In other words, he brought to me the offering that you sent, and ministered to my needs.

*For he longed after you all, and was full of heaviness, because that ye had heard that he had been sick. For indeed he was sick nigh [he was near] death: but God had mercy on him; and not on him only, but on me also, lest I should have sorrow upon sorrow (2:26-27).*

가이사가 나를 놓아주면, 나도 너희에게 갈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24)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보낸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전해 주었고, 나의 필요한것을 채워 주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26-27)

So Epaphroditus almost died. He was extremely sick, and they had heard of his sickness and were worried about him. And so Epaphroditus was concerned, they were worried for him, because of that sickness.

Interesting, Paul had a tremendous ministry of healing. Miracles were wrought, and yet, he speaks of Epaphroditus almost dying with his sickness. Why doesn't God heal everybody? Why is it that God heals some and does not heal others? Hey, we will never know the answers to that. Beware of those who have pat answers on the subject of healing, on the subjects of the works of God or the whys of God.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을 하고 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기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시고 또 다른이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치유에 관한 답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유, 왜에 관한 질문들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God says, "My ways are not your ways, they are beyond your finding out." We really don't know, and it is wrong to place the guilt upon the sick person. That's the last thing they need, for you to come in and say, "Well, brother,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you, some sin in your life that you are so sick. You just don't have enough faith, and if you only believed God, you could get up out of this bed and walk. You have been making the wrong confession. Don't say you feel bad, say, 'I feel great.'" It is not going to do it.

하나님께서, “내 길을 너희 길과 다르며, 너희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My ways are not your ways, they are beyond your finding out.) 우리는 진실로 알지 못하며, 환자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찾아와, “형제님, 당신이 뭔가 잘못을 했기에 그 죄가 당신에게 병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고백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아주 좋다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최후에나 할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병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God does heal; I believe that. I have been healed many times, I know that. But God doesn't heal everybody, I recognize that. And why, I don't know. I have known reprobates who have been healed; I have known extremely godly people who were not healed, but died. It has nothing to do with a person's righteousness. It has nothing to do with a person's faith. Healing is a work of God, and it is sovereign with God and it is in God's hands. It is wrong to put the burden upon the people who are sick or upon your relatives. And I thoroughly discount as junk the messages that God wills that everybody should be healed.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치유하지는 않으심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타락했던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아주 경건한 이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절대권이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나 그의 가족에게 짐을 지우는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말은 철저히 무익한 말로 취급합니다.

So Paul said,

*I sent him [Epaphroditus] therefore the more carefully, that, when ye see him again, ye may rejoice, and that I may be the less sorrowful. Receive him therefore in the Lord with all gladness; and hold such in reputation: because for the work of Christ he was nigh [near] unto death, not regarding his life, to supply your lack of service toward me (2:28–30).*

So, he hazarded his own life in order to bring their help to Paul, and Paul appreciates it, and is sending him back with the commendation for his faithfulness. We can finish the book of Philippians next Sunday, and these next two chapters are classic. I'll tell you, they are so much. I just love them.

그래서, 바울을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2:28-30)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도움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며, 그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다시 그를 보냅니다.

다음 두 장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빌립보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rest and abide with each of you through this week, that you might be strengthened by His Spirit in your inner man, that you might receive the Spirit of understanding and enlightenment, that you might be able to understand how much God does love you, and His plan for your life, that you might live your life for Christ, and share with Him in His kingdom forever. God bless you, children of the King. May you walk in His love, and in His grace, in Jesus' nam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음 한 주일도 함께 하기를 바라며,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해와 깨달음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지를 알고, 여러분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  
C#2608-1  
By Pastor Chuck Smith

3 장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Philippians 3.

Again, remember that the background of this epistle, Paul is chained to a Roman soldier in Rome, in prison, writing to the Philippians. The keynote of the epistle is rejoice, and he said,

*Finally, my brethren, rejoice in the Lord (3:1).*

You know, oftentime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rejoice in circumstances. In fact, I think sometimes it is impossible to rejoice in circumstances. I just did a dumb thing, I ran through a red light and hit somebody and I am being sued for a million dollars. It is hard to rejoice in circumstances. But you can always rejoice in the Lord, because He is above circumstances. So, the exhortation in the scripture is always that of rejoicing in the Lord. And Paul writes,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to me indeed is not grievous (3:1),*

자, 이제 다같이 빌립보서 3 장을 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 서신의 배경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바울은 로마군인과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의 요점은 기쁨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1)**

아시다시피, 많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바보같은 짓을 저질러 빨간 신호등에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죽여 백만불의 고소를 당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3:1)**

In other words, "Here I am, I am chained in prison, but I don't find it hard to write this to you. I am rejoicing here, in the Lord." I am sure he wasn't rejoicing in the circumstances themselves. They were rather miserable, but that does not stop you from rejoicing in the Lord. There is always cause to rejoice in the Lord.

다시 말하자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너희들에게 서신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여기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물론 상황 그 자체는 기뻐할 수가 없었겠지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것이 주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but for you it is safe. Beware of dogs (3:1-2),*

Now, immediately after telling them to rejoice in the Lord, he is warning them about the false teachers. Paul had certain people that seemed to follow him wherever he went, trying to pervert that which he taught of the grace of God, especially the Jewish legalizers who sought to bring the people back to a legal relationship with God, putting them under the law. They demanded that they be circumcised and they keep the law of Moses in order to be saved, which Paul called the perversion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3:1-2)**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경고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율법 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 돌아가서 그들을 율법 아래 두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It is interesting that these people usually referred to the Gentiles as dogs. That was a common name by which the Jews referred to the Gentiles: the gentile dogs. It was not a reference to a kindly family pet, but it was a reference to those mean wild dogs that roamed Israel. Barking and snapping at everybody, and belonging to nobody. And they were a sort of a hated animal. And thus the name *dog* the Jews began to apply to the Gentiles. It is interesting that Paul turns it around and uses it of those teachers that would seek to put the believers back under the law.

흥미로운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방인 개들이라고 부르는 통용적인 이름이 었습니다. 그것은 애완견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처없이 떠도는 거친 개들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향해 짖고 물고,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미움받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다시 돌려 신자들을 율법 아래 두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칭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Beware of dogs, beware of evil workers, beware of the concision (3:2).*

The word *concision* comes from a Greek word, which means *mutilators*. Paul is talking about their demands that the Gentiles be circumcised to be saved. And then he uses a contrasting Greek word, and it is a play on Greek words. If you read any Greek, you can pick up on the play on words. "Beware of the concision."

*For we are the circumcision, which worship God in the spirit (3:3),*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3:2)**

분열 혹은 분리 (concision) 이란 말은 헬라어로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요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흥미로운 단어 사용법이지요. 여러분이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단어의 사용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을 훼손 시키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우리가 곧 하례당이라. (3:3)**

Paul was constantly emphasizing that the physical rites had no value except there be a corresponding spiritual experience, that the circumcision of the flesh accounted for nothing. What God was interested in is that my heart was circumcised, that I had the heart after the Spirit, and not after the flesh. And though I may have a fleshly rite, if my heart was after the things of the flesh, then what happened to me physically has no bearing upon my relationship with God at all. The same can be said of any of the other rites that we have within the church. The rite of water baptism is really not a physical rite, but a spiritual experience. It is not the physical experience that saves, it is the spiritual: the death to the old nature and the old man in my heart, the reckoning of myself to be dead, and living that new life in the resurrected Lord. And so Paul says, "Beware of those who would mutilate your body, for we are of those who are circumcised in the spirit." We worship God in the spirit.

Jesus said,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rejoice in Christ Jesus (3:3),*

바울은 영적 체험이 없는 육신적인 관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육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것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관습을 지킨다고 해도, 내 마음이 육의 것을 따르면, 내게 행한 육신의 관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못줍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른 모든 관습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침례식은 육신의 관습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는 육신적인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옛 사람은 죽고, 내 자신이 죽어 없어진 것을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육신을 불완전하게 하는 무리를 삼가라. 우리는 영으로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찌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3:3)**

And that is in the glorious liberty that we have in Christ Jesus, that relationship that we can now have with God apart from the law.

*and have no confidence in the flesh (3:3).*

Now, Paul said in his Roman epistle, "I know in me, that is in my flesh, there dwells no good thing." I have no confidence in the flesh. Paul said,

*Though I might also have confidence in the flesh. If any other man thinketh that he hath whereof he might trust in the flesh, I more [If anyone might have something to boast in the flesh. I am the one who would]: Circumcised the eighth day, of the stock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the Hebrews; as touching the law, a Pharisee; Concerning zeal, persecuting the church; touching the righteousness which is in the law, blameless (3:4-6).*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율법에서 떠나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영광스런 자유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3:3)**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롬 7:18)”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내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3:4-6)**

Hey, this is a pretty good pedigree. I mean, if you can be saved by works, if you can be saved by your own efforts, if you can be saved by keeping the law, then Paul said, "Hey, I am ahead of the pack. I more than anybody else. I had everything going for me as far as righteousness from the law."

꽤 좋은 족보입니다. 만일,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나의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율법의 의로 따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You remember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chapter 5 of Matthew, said, "Except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you shall in no wise enter the kingdom of heaven." Now, Paul was a classic example of what Jesus was referring to. As far as the righteousness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Paul had it. He had done everything that he was supposed to do according to the law to be righteous. In fact, he had gone beyond. He was a Pharisee. He persecuted the church. As far as his zeal and according to the righteousness that is in the law, he was blameless. But still, that is not enough to bring a man an entrance into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장의 산상보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형적인 예가 되는 인물입니다. 의로움으로 따진다면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오히려, 능가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열심히 보나 율법의 의로움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는 흠이 없었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합니다.

Now, here they were going around and trying to tell the Gentile believers that you had to keep the law to be righteous. Paul said, "No, I came out of that. I had it made as far as the law was concerned." But then this monumental statement,

*But what things were gain to me, those I counted loss for Christ*  
(3:7).

All of this background that put me in a high standing as far as the law is concerned I counted loss for Christ.

*Yea doubtless, and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3:8):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아니야, 나는 율법을 벗어났으며, 율법에 관해서는 내가 모든것을 다 해봤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은 기록적인 성명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3:7)

율법에 관해서는 최상의 자격을 갖추었던 모든 배경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3:8)

Paul the apostle is on his way to Damascus to persecute the church. He had papers from the high priest that empowered him to throw in prison those who believed in Jesus Christ. And as he headed out towards Damascus, he was going out with threatenings of murder against the believers. But while he was on his way, just before arriving in Damascus about noontime, there came a light from heaven brighter than the noonday sun. Paul fell on the ground, and there the Lord spoke to him and said, "Saul,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And he answered, "Who art thou, Lord that I may serve thee?" And He said, "I am Jesus. It has been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the pricks." And there Paul was converted. He met Christ on the Damascus road. Suddenly upon meeting Christ, all that he counted as important to him up to that point in his life, all of his religious credits, all of the religious background, he said lost for Christ. Because this is going to bring him an estrangement from his cronies back in Jerusalem that he has been going around with.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부터 공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까이 왔을때 신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때 정오쯤 되어 정오의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췄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제가 섬겨야 할 주는 뉘시오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바울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갑작스레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그가 그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 그의 종교적인 신임과 배경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Paul is writing this epistle to the Philippians some thirty years after the Damascus road experience. He is referring to it, "The things which were gain to me, I counted loss for Christ, thirty years ago, on the road to Damascus." But then Paul updates his experience. And he said, "Yea doubtless, and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In other words, "I experienced it thirty years ago, and I had a turn-around in my life, and all of the past legalism and legal relationship with God, and all of those endeavors in my own flesh, the works of my flesh, I counted loss. Now I do count them, thirty years later, I still count them loss."

다메섹상에서의 체험이후 삼십여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삼십년전 다메섹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의 체험을 새롭게 합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삼십년 전에 내가 그것을 체험했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왔고, 과거의 모든 율법주의와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 육신의 모든 노력, 육신의 일들이 모두 해로 여겨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삼십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

A lot of people testify of an experience that they had in Christ years ago. "Oh, I had such a glorious experience, the Lord met me in such a powerful way. And I just dedicated my life completely to the Lord. I was so moved, I was so touched by the Spirit of God upon my life." But unfortunately, since then, a lot of those things that they counted loss at that point, they picked back up, so that they are encumbered again. You see, past experience is only valid if it is translated into the present. If the past experience has not been translated into the present, then it really has no value at all. There is really no value to say I counted those things loss for Christ thirty years ago, if in the meantime I have picked them back up and I am encumbered with them again. Always, we must be able to translate the past experience into the present relationship if it is to be a valid experience at all. Otherwise, the experience is invalidated.

많은 이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간증들을 말합니다. “오, 너무도 영광스런 체험이었고,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다.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했고, 성령께서 나와 내 삶에 큰 감동을 주셨다.” 그러나, 불행이도, 그 때 해로 여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 짐을 지고 번민하곤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체험은 그것이 현재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이 현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삼십년 전 해로 여기던 것을 다시 하면서 짐을 지고 번민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의 체험이 현재의 관계로까지 이어지도록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I really am not so much interested in what happened to you thirty years ago, twenty years ago, or ten years ago. I am interested in what is your relationship tonight with the Lord. That is what is important. Experiences are good. Thank God for the experiences, but they are not valid unless they are translated into the immediate, present relationship, and I do count them but loss. It is still going on. The past is translated into the present. "I count all things but loss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I love that phrase.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저는 여러분이 지난 삼십년 전, 이십년 전, 십년 전에 어떠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주님과과의 관계가 어떠한 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이 당장 현재의 관계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해로 여겨질 따름입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I think that we have to be the most blessed and privileged people in the world. You know,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world tonight who have never had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our Lord. People lived and died without ever having heard of Jesus Christ our Lord. Not only do we have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but we have the privilege of gathering together and studying the word of God together. What some people wouldn't give for the opportunity of gathering with us.

He sai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3:8),*

제 생각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특권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기회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3:8)**

Indeed Paul did. He was totally, completely ostracized by those who were once his compatriots, those whom he once shared with. When he received Jesus Christ, as far as they were concerned, he was dead. He no longer existed. But he said those things which were so important to me, those things for which I lived,

*And do count them but dung [as refuse], that I may win Christ,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mine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but that which is through the faith of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by faith (3:8-9):*

바울은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한때 같이 동고동락하던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절교 당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바울은 죽었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들은 그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으며 그것들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3:8-9)

Now, Paul had excelled in the righteousness in the law. He said he was blameless. But he said he cast that over for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He counts all of the works of the past just wasted effort, refuse. "My desire is to know Him, and to be foun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my works through the law, but now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by faith, that righteousness which is imputed to those who believe, that righteousness that Abraham had when God imputed his faith for righteousness.

바울은 율법의 의으로는 뛰어나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기울어졌고 과거의 모든 일들을 헛된 노력 즉 쓰레기같이 여겼습니다.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내 의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시고 주셨던 그 의를 말합니다.

Now, I can endeavor to be righteous before God by my own works and efforts. I must, first of all, set the standard: what constitutes righteousness?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And having determined then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I may then seek to always do that which is right. Work hard at doing that which is right. And, at best, I can develop a self-righteousness. The effect of it usually on the individual who has obtained such a thing: I keep the rules; I never do anything wrong; I always do what is good; I am a doo bee; I am just living by these righteous standards. The effect upon the individual is usually pride and the developing of a judgmental attitude.

내가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의를 이루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섰다면, 이젠 항상 옳은 일을 하도록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일을 열심히 하면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주로: 나는 법을 지킨다;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항상 선한 일만 한다; 열심히 일한다; 나는 의의 기준에 맞춰 산다.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는 주로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태도가 형성 되는 것입니다.

As the Pharisee who went in before the Lord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I am not as other men. I am not an extortioner, and the other things. God, I thank you that I am so good," that pride and self-righteousness. But then, worse than



that, this judgmental spirit. Because suddenly, you see, I am on a little spiritual pinnacle, and I can begin now to judge everybody else who doesn't live by the same standards of holiness by which I live. "How can they say they are a child of God? How can they say..." and here I am in my little pompous righteous throne, judging everybody else who isn't living by my standards. It can be a very dangerous thing.

주님보다 앞서 들어간 바리새인이 말했듯, "아버지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토색하는자가 아닌것과 다른 일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선함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스스로 의롭게 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비판적인 마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내가 영적 절정에 다달아 자신보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신이 아주 당당한 정의의 자리에 앉아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On the other hand, I can recognize that I have a problem with sin, with myself, with my flesh. I can be honest with myself. When I have been upset (because that is against my rules, never be upset) and so I am upset, I have to lie to myself and say, "I really wasn't upset, I was just indignant." And you can become a phony, because, you know, you set your own standards; you live by your own rules. But when I take the righteousness which is by Christ, it is an honest life, I can say, "Hey, I am not perfect, but I believe in Jesus Christ with all my heart. He is my Savior. He is my Lord." And God then imputes to me, or accounts to me, righteousness. On my account, God writes *righteous*.

그와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와 나 자신과 육신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수있고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다가 화가 너무 날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다. 난 화가 난 것이 아니고, 그저 기분이 좀 나쁠 뿐이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절대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그 세운 기준으로 인해 스스로가 진실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한 의를 얻으면 정직한 삶이 됩니다. "난 완전한지 못하지만,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단에 의롭다고 적으십니다.

Now, the problem of being righteous by my efforts, by my works, I may be doing right, I may have lived all of my life up to this point by the rules, having never violated, sailing along in good shape, and there is written across my name, righteous. But tomorrow, some nut pulls in front of me on the freeway and then blocks and traps me, and I may shake my fist and honk my horn, and say, "Get off the road, you fool." And all of my good record down the tube and the righteousness is erased. I blew it. Oh, what a shame. Here, my entire life I have never done anything wrong, have been going by the rules, up till now. You see, there would be no security in that kind of righteousness at all. And any moment I could lose it. But not the righteousness which God has accounted to me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Because I may blow my horn and shake my fist, but the Spirit will say, "Hey, don't you remember you have got a fish emblem on the back

of your car?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you pass the guy?" And I may pull over to the side of the freeway and decide not to pass him so that I won't be a bad witness, and bow my head and say, "God, I am sorry. That isn't a real representative of You. Forgive me, Lord."

나의 노력 또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따르는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옳은 일만 하고, 모든 법을 지키고, 모든것을 잘 해서 내 이름에 의롭다고 적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내일, 어떤 몰지각한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어 내 차를 가로 막아 버리면 팔을 휘두르고 경적을 울리며, “바보 같은 녀석, 고속 도로에서 사라져!” 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선한 일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나의 의는 지워지고 맙니다. 망쳤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내 평생에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고, 모든 법을 지키며 살아 왔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에는 보장이 없고 어느 한 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팔을 흔들고 경적을 울릴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기억하지 못하니? 저 차를 지나갈 때 어떻게려구?” 그러면, 차를 옆으로 비켜줘서 내가 잘못된 증인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고개숙여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방금 그 행동은 당신을 진실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You see, the angel doesn't have to erase the righteousness and then rewrite it, or whatever. It stays there. The righteousness through faith in Christ, my faith in Jesus doesn't waver. My actions they may, but not my faith in Him. And the righteousness is accounted to me by my faith in Him. And so, it is an established righteousness. No wonder Paul opted for the new righteousness, though he had done pretty good up until this point. "Don't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tomorrow, so hey, I will jump this ship and get on this one and I will gladly throw overboard the old life, with the struggle and the effort in my flesh, in order to live this new life after the Spirit, believing and trusting in Jesus Christ, to do for me what I really can't do for myself. And to be foun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bu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through faith."

천사가 그 의를 지우고, 다시 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는 바뀔수 있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워진 의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도 왜 새 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지 알만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난 이 배에 올라, 내 육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왔던 옛 사람을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도록 성령을 따라 사는 새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율법아래 있는 나의 의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다.”

Probably the best illustration I have heard of this particular passage is the story of the young girl who came from very poor circumstances, but was diligent and worked hard to work her way through college. And now she was in her senior year. They were going to have the senior prom. And she was so excited over the fact that she had been able to labor and work and make her way through college and was going to be graduating. So, she decided that she would make for herself a

new dress for the senior prom. Now, because she had spent all of her money on tuition, and just getting by, on her books, and everything else, she really didn't have much money. She couldn't buy a dress, but she really didn't have much money to buy very good material. But she went down to the dime store and picked out the best that she could afford, bought a simplicity pattern. She laid the thing out, carefully cut it out, but she really had never sewn anything before. So, by the trial and error method, the redoing a lot of the seams and all, and the hem wasn't really straight, but it was a good effort. She gave it her best. It was surely the best that she could do. And so, she put it on and she walked out in the dorm where the other girls were and she said, "Look girls, this is my new dress for the prom. I made it myself." And they were kind to her, they said, "Oh, that is nice," but they did notice the imperfections in it. And did feel rather sorry for her. But they recognized that it was the best that she could do.

아마도 내가 들은 예화 중에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서 열심히 일하여 대학까지 졸업한 부지런한 한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 졸업파티를 가게 되어 너무나 기뻐서 부풀었지만, 그동안 등록금과 책을 사느라 막상 드레스를 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처녀는 좋은 천을 살 만한돈이 없어서 구제품 상점에 가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천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천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전에 바느질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서투른 솜씨로 바느질을 하며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바르게 되지 않았지만 좋은 노력의 결과로 그가 만들수 있는 최상의 옷을 만들었으며 한숨 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만든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파티에 입고갈 드레스야. 내가 손수 만들었어.”하며 자랑했을때, “오, 그거 좋다” 라고 했지만 서투른 솜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최선을 다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About that time, Lady Bountiful walked in the door. And she saw this young girl, modeling her dress and she said, "Would you mind going with me?" And the young girl went outside, and there was a limousine chauffeur, and they went down to I. Magnum's, and the chauffeur took the car up. They went in. And so the models started coming in with all these beautiful dresses showing them off and doing their little stances and all, and a model came in that had a dress that was absolutely gorgeous. She just sort of caught her breath when she saw it, it was just such a glorious gown.

Lady Bountiful, being very astute, noticed that she gasped at that one. She called the model over that they might look at it more closely and feel the texture of the material, and obviously she was very impressed with it. But as the model was turning around, her eye caught the ticket with the price tag \$4,295.00. And she thought, "Oh my, I didn't dream anything could cost that much." But, Lady Bountiful, seeing her interest in it, said to the clerk, wrap it up and have it sent to the car.

그러던 중, 한 부인이 들어와 이 젊은 처녀가 옷을 입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가지 않겠니?”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처녀를 리무진에 태워 아름다운 드레스와 모델들이 있는 백화점에 데리고 들어가 여기 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델이 아주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처녀가 어느 한 드레스를 눈여겨 보는 것을 본 부인은 눈치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모델을 불러서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그 처녀에게 보였습니다. 이 처녀는 그 옷을 자세히 보고 옷의 촉감이 너무 좋아 완전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모델이 옷을 돌려줄 때 그 처녀의 눈은 무려 \$4,295.00 이라고 적힌 가격표에 눈이 사로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오, 난 이렇게나 비싼 물건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나 부인은 이 처녀가 그 옷에 관심있어 하는 것을 보고 점원에게 이야기하여 차에 보냈습니다.

When she got back to the dorm, she went into her room and she carefully unwrapped this dress, put it on; it fit perfectly. Now she walks back out where all of the girls are waiting, and she said, "Look girls," and as they gasp in amazement at the glory and the beauty of the dress, she said, "This is something that I could have never purchased for myself. It is something that I could have never made for myself, but it was given to me by Lady Bountiful."

자신의 기숙사로 돌아와 조심스레 드레스를 풀어서 입어 보니 자신에게 꼭 맞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곳에 가서 섰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드레스에 끌려 쳐다보았습니다. 그 처녀가 말하기를, “얘들아, 이것은 내가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야. 하지만, 한 부인이 내게 주셨어.”

So Paul, he had done his best to clothe himself in righteousness by works, but then he came in to that glorious knowledge of Jesus Christ, and, "No longer," he said, "to be found in my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my own making, my own work, but I will gladly exchange that for the glorious righteousness which God has accounted to me through my faith in Jesus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through faith. Something that I could never purchase for myself, something that I could never do for myself. With all of my efforts I could never come up to that. And yet, that is what God has imparted to me through faith, my faith that He has given to me, in Jesus Christ.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스런 지식을 갖게 된 후, “더 이상 율법이나 나의 의와 행함과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영광스런 의와 바꾸겠노라.” 믿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얻어지는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를 수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입니다.

Paul goes on,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3:10),*

And at this point we also say, "Ya, ya, power, I want power. I would like to know Him in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Give me the power," and we are so power-hungry. But Paul didn't stop there did he?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3:10),*

Hey, wait a minute, Paul; I want to get off at the last stop. I don't know about this suffering bit. I like the power, but I don't like the suffering. Don't you know that Christians don't have to suffer?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3:10)**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아. 권능, 난 권능을 원합니다. 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내게 권능을 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권능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3:10)**

잠깐만요, 바울 선생님; 전 마지막 정거장에서 빠지겠습니다. 전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는 권능은 좋아 하지만, 고난은 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Our flesh always rebels against suffering. The disciples found it difficult to handle when Jesus started talking about the suffering that he was to experience, and Peter cried out, "Lord, be that far from thee." And Jesus said, "Get thee behind me, Satan, you offend me." It was the natural cry of man, "Spare yourself from suffering." But Paul is willing to follow Jesus to the cross. "I want to know him; I want to know him completely." Yes,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but you know, you can never know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until you have, first of all, know the cross. Jesus wasn't resurrected until he first went to the cross. The resurrected life always follows the crucified lif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follows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 and the cross. And so yes, I want to know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but if I am to experience that, I have got to, first of all, experience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 the death on the cross, the death to my old self, my old nature.

우리 육신을 항상 고난에 저항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감당하기 어렵게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고난을 면하라.”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 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분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결단코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 가실때 까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항상 고난의 삶 뒤에 따라옵니다. 부활의 권능은 고난에 참여함과 십자가가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려면 먼저 고난에 참여함, 십자가의 죽음,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being made conformable unto his death; if by any means I might attain un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3:10–11).*

But how can you atta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unless you, first of all, have died? You see, Jesus could not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until the cross. The cross was essential and necessary for Him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So it is true with us. I am crucified with Christ, now I can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ed life. And many people have never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resurrected life, because they have shied away from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 and of the crucified with Christ life. "I want to hang on to the flesh. I don't want to see it nailed to the cross. I want to hold on to the things of the flesh." But you will never know the life of the resurrected Christ until you have experienced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s.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3:10-11)

하지만, 당신이 먼저 죽지 않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데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난 이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함과 그리스도의 삶으로 못박히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난 육신을 의지합니다. 십자에 못박히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권능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If by any means I might attain un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Not as though I had already attained, either were already perfect (3:11-12):*

It is sort of sad that so many people seem to feel that they have attained, or they have achieved their spiritual walk, and they sort of sit on little pedestals, little ivory towers. "I have attained, I have achieved. Here I am, you know, come and I will teach you. Sit at my feet and learn." But Paul the apostle said, "Look, I don't consider that I have attained; I don't look at myself as being perfect, the work of the Lord is not yet complete in me."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3:11-12)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스스로 얻었다 생각하거나 영적 신앙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여 말하자면 작은 상아탑, 즉 자리를 잡습니다. “난 얻었고 이루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지도 못하다. 주님의 역사가 아직 네게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고 합니다.

*but I follow after [I am pursuing], if that I may apprehend that for which also I am apprehended of Christ Jesus (3:12).*

Now, Paul recognized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for all of us to recognize who have been apprehended by Jesus Christ. When the Lord apprehended us, and

you can all look back in your own life to that point where the Lord apprehended you, where He said, "I have chosen you and ordained you that you should be my disciple," and we turn to follow Jesus Christ. Now, when the Lord apprehended us, He had in His mind a plan and a purpose for each of our lives. The Lord knew exactly what He intended for you to do. He had a work for you to fulfill. Paul said, "I have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The Lord apprehended me, but when He did, He had a purpose in mind. I have not yet accomplished that purpose."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 가노라. (3:12)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를 택했고 임명했으니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아야할 것을 아직 잡지 못했다. 주님이 나를 아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실때엔 그분의 목적이 있었다. 나는 아직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Now, the fact that we are sitting here tonight, we can all say the same thing, "I am not yet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The reason why we can all say it tonight is because we are all here. Why did the Lord apprehend you? So that you could share with Him the eternal glories of His kingdom. And so, when He is finished with me here, this robe of flesh I will drop and rise to seize the everlasting prize and shout while passing through the air. Farewell, farewell, sweet hour of prayer. And one day when I am sitting, looking up in Jesus' face, just overwhelmed by His glory and love, I will turn to the fellow next to me, and I will say, "I finally have apprehended that for which I was apprehended. This is what the Lord intended for me, to be with Him in His kingdom, to share with Him His glory. Father, I would that those who You have given to me, to be with me here, would also share with me in the Kingdom."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으므로, 우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당신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땅에서 나와의 모든 일들을 마치실때, 나는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일어나 공중으로 돌리울 때 소리칠 것입니다. 안녕, 잘있거라. 즐거웠던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언젠가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 그의 영광과 사랑에 감격하여 옆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붙잡힌바 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것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분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며 같이 즐겁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That is why God apprehended you; He has a glorious plan and a purpose for your future. He has a plan for your life now, and we should be as Jesus, who said,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Anything I do for myself is a waste of time

and effort. I am forestalling the plan of God. So what do I do? I forget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당신의 미래에 관한 영광스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나이다” 라고 할수 있어야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실천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합니까?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A lot of people make the mistake of trying to live in the past. And with a lot of people, there is just a lot of bad experiences in the past. And the problem is that they are constantly going back and going over those bad experiences. And they are not really going ahead in life at all, because they are so involved in the past. "They really did me wrong. I can't get over that. I can't believe what they did to me. I just can't rise above it. I just..." And living in the past, and being destroyed in the past, and can't go ahead because they are looking backward. Living in the past, there is always that danger of discouragement, which shuts off initiative for the future.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려고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계속 과거로 돌아가 그 나쁜 경험들을 계속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에 전진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내게 너무 잘못했다. 도무지 견딜수가 없어. 그들이 내게 그렇게 할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난 정말...” 과거에 살고 있으며, 과거에 의해 망가지고, 뒤를 돌아 보기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살면 항상 낙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동기를 막아 버립니다.

The Lord may inspire you to some good work that He wants you to do. Many times the worst thing you can do is share with your friends what the Lord has laid upon your heart to do. Because so many times, they say, "Well, you really can't do that. You see, someone else already tried that and it just doesn't work." And so they go back to the past, and they pick up the failures of the past, and they are discouraged to try anything in the future. And so looking back to the past, oftentimes, we look at our failures and we are discouraged from trying to go on. "Hey, I tried it before. I tried it for so long. It just doesn't work. I just can't do it. If I could, I would have done it a long time ago," and looking back I am discouraged of trying to go ahead.

주님이 당신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대한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당신의 마음 속에 주신 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넌 절대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구.”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 실패만 골라서 미래를 향한 어떠한 것도 좌절 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실패만을 보존하여 전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해봤어.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 보았지만, 그건 안돼. 난 아무래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거야.”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Or, on the other hand, a person looks back and glories in their victories of the past, and they are resting on their accolades. "You know, it is what I used to be, what I used to do. I hold the record and my name is on the record books, and all." They are always looking at their past and doing nothing now. They are stagnating now. They go to the bars and drink lite beer and talk about the touchdowns they use to make. They are living in the past, the past glories. Television would cause you to think that that is all retired baseball and football players do is just hang around the bars drinking lite beer, talking about the past. And it is sad when a person is resting in the past, not pressing ahead. The past has been glorious, it has been exciting to see what God has done, but you know, I am more excited about what God is going to do.

반면에,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승리의 영광에 몰려 안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일들을 하곤 했지. 내가 기록부를 갖고 있었고 내 이름도 거기 다 있지.” 그들은 항상 과거만 보고 현재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침체되어 갑니다.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며 과거에 자신이 풋볼에서 터치다운을 했던 이야기만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살고, 과거의 영광에 삽니다. 텔레비전은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지금은 술을 마시며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과거도 영광스럽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영광스럽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더욱 흥분 됩니다.

So,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th un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3:13),*

We haven't seen anything yet. Like the song sai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And rather than resting in the past, what God has done, let's look forward to what God wants to do.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3:13)**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자비의 빗방울이 우리 주변에 떨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낙비를 내려 달라고 청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안주하는 것 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We haven't yet scratched the surface of the work that needs to be done in the hearts and lives of the people of Orange County, in Southern California, across the United States. We have only begun to see the work of God; we have only begun to see the glory of God poured out. Let's not just sit back and rest, let's press forward to what God has for us in the future. "Reaching forth 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I press," and the word in the Greek is *agonizo*. They say, that in training for the Olympics, you have got to go till it hurts, and you have to work yourself through the pain. I mean, you have got to give it every effort, working through pain, beyond the pain threshold. You run until you ache and you think you can't go anymore, but you keep going. You think you are going to drop, but you keep going. And there comes that second wind, then it seems like you can go forever.

But it is working through it, but it is agonizing. When you are pressing towards the mark. I agonizo towards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우린 아직 하나님께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전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속에서 하실 일들의 걸만 활은 상태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 했으며 하나님이 부으실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편히 앉아 관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래에 하실 일들을 향해 전진 합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헬라어로는 agonizo 입니다. 그 의미는,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할 때 몸이 아플 때까지, 아픔을 거치는 철저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온갖 힘을 다해,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지나 그 이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플 때까지 달리면 더 이상 못 갈것 같이 생각 되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합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그리도 가야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새롭게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다시 납니다. 쫓대를 향해 전진할때 고통스럽지만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부름의 상을 쫓아 쫓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Paul said, "Don't you realize that they that run in a race run all, only one receives the prize, so run that you may obtain." There are a lot of people running the race just to say, "Well, I ran in the race." "Well, where did you place?" "Well, I didn't finish it, but I ran in it." Paul said, "One receives the prize, and you run to obtain." In other words, "Give it all you have got."

*I press toward the mark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Let us therefore, as many as be perfect [would be complete], be thus minded [let this be in your mind] (3:14-15):*

바울은, “모두가 경기에 임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하나임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상을 얻기 위해 달려라.” 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경기에 임합니다, “난 경기에서 달렸어.” “넌 몇등했니?” “난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경기에서 달렸어.” 바울은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으므로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라.”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하라.”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3:14-15)*

Let this be the same rule for your life. Forgetting the things which are behind, reaching forth for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pressing towards that mark, be thus minded.

*and if in any thing ye be otherwise minded, God shall reveal even this unto you. Nevertheless, whereto we have already attained, let us walk by the same rule, [and] let us mind the same thing (3:15-16).*

Let this be your mind, let's walk by these rules. And so the rule of the Christian life is: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pressing for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or reaching for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pressing towards the mark.

이것이 여러분 삶에도 규칙이 되게 하십시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푼대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3:15-16)**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법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쫓아 가는 것입니다.

*Brethren, be followers together of me (3:17),*

So, let this be your mind, let this be your attitude, follow me.

*and mark them which walk so as ye have us for your ensample  
[example]. (For many walk, of whom I have told you often, and now tell  
you even weeping, that they are [really] th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3:17-18):*

You k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talk a lot about Jesus Christ but ar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That is, they want still to live after the flesh so bad, that the idea of being crucified with Christ, the death of the old life, the death of the old man, the death of the old flesh life, is irritating to them. They don't want to hear it; they are enemies of that message. They want to tell you that you ought to be prosperous, you ought to be successful, you ought to be living in luxury, you are God's child, you ought to be indulging your flesh. Whatever you desire, just ask God, insist on God, command God. Because you can drive a Cadillac, and you can live on Lido Island. You can have these things of your flesh, you know. And it is an interesting period in church history where those who are indulging their flesh look upon it as spiritual superiority. "You know, if you only had enough faith, you could be jetting across the United States also in your own Lear Jet." So, it is rather tragic, because these people are opposed to the life of sacrifice, self-denial, and yet, that is the first step that Jesus said was necessary to be a disciple of His; you have got to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Him.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3:17)**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 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울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17-18)**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육신을 좇아 살기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  
옛생활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과거 육신적인 삶을 버린다는 사실이 그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 메시지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부자가 되어야하고,

성공하고, 화려하게 살아야 하며, 육신의 쾌락을 구해야한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장하며 명령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차도 운전할수 있고 바닷가의 집에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육신의 쾌락을 얻는 것이 영적 최고봉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신이 충분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개인 전용 비행기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희생적인 삶과 자기부인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수적인 첫 걸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And Paul said, "Follow me; you have me as your example. The old life, you know, I accounted loss. I want to know Him, I want to know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but yet, I want to know the fellowship of the sufferings and the cross. So, those things which we once gained, those things which were once so important to me, I counted loss, and I forget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because I am pressing forth for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And now, follow me as an example, live by this rule, because there are those who don't live by this rule. There are those who are living after their flesh. They are enemies to the cross of Christ, not to Christ Himself, but to that aspect of suffering with Him,"

바울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옛 삶은 다 해로 여긴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도를 알기 원한다. 그러므로, 한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얻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린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를 본받고, 이 법대로 살기 바란다. 아직도 이법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좇아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나 주님과 고난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Whose end is destruction, whose God is their belly, and whose glory is in their shame, who mind earthly things [because their minds are always on earthly things] (3:19).*

They are out there, there are many of them. In front of people they can act very holy and sanctified and excited and exhilarated in the things of the Lord, but when they get away from the stage, they can have filthy mouths; they can tell dirty jokes, they are living a two-faced life. They exist; they are there. Paul warns that they are there, they were there in Paul's day; they are there today. They really mind the earthly things. Their mind isn't after the Spirit and after the things of the Spirit, they are more concerned and interested in the types of cars they drive and the things of the flesh and the earthly things, than they are the things of the Spirit. But Paul said,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3:19)*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주님 일에 흥분하는 척하면서, 무대를 벗어나면 더러운 입과 더러운 농담을 하면서 이중생활을 합니다.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이나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영적인 일보다는 운전하는 자동차나 욕의 것을 따라 땅의 것에 더 관심과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For our conversation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ence also we look for the Saviour,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change our vile body [or our body of humiliation], that it may be fashioned like unto his glorious body, according to the working whereby he is able even to subdue all things unto himself (3:20-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3:20-21)

Our citizenship. "Let's not get too," Paul said, "involved in the world. Let your every contact with the world be just as light as possible." Our citizenship isn't here. Abraham and those saints of the Old Testament, the scripture said, confessed that they were just strangers and pilgrims on this earth, that they were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th foundations whose maker and builder is God. They were looking for the eternal kingdom of God. They weren't looking for a place, and so they roamed the earth, as outcast, not possessing of the earth.

우리의 시민권. 바울은, “세상에 너무 관여하지 말자. 세상일은 최대한 가볍게 하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땅에서 외국인인과 나그네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세상의 거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랑자 같이 살았으며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Jesus roamed the earth as an outcast, didn't seek to possess any things of the earth. Why? Because He was interested in the heavenly kingdom.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which we look for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when He comes, He is going to change our bodies, that they might be fashioned like His own glorious image.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but it doesn't yet appear what we are going to be, but we know when He appears, we are going to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1 John 3:2).

예수님도 방랑자 같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런 형체처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일 3:2)

“I'll show you a mystery, we are not going to all sleep, but we are all going to be changed in a moment, in a twinkling of any eye. For this corruption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and then will be brought to pass the saying, Oh, death where is thy sting? Oh, grave where is thy victory?” (1 Corinthians 15:51-55)

When Jesus comes again, we will each experience a metamorphosis. “This robe of flesh I will drop and rise to reap the everlasting prize.” The new body, the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uman hands, the eternal house that God has created for my spirit. And so, this body will be changed, and I will receive a new body like His, fashioned like His glorious image, according to that power of the Spirit that raised Him from the dead.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쓰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전 15: 51-55)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가 변태현상을 체험할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일어나리라.” 새 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내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변하고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스런 형상과 같은 새 몸을 얻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 장  
C#2608-2

*Therefore, my brethren dearly beloved and longed for (4:1),*

What a beautiful words by Paul to the church, expressing his heart, just bearing his heart to them, "Dearly beloved, I long for you. My brothers, who I dearly love and I long for,"

*[You are] my joy and [you are] my crown, so stand fast in the Lord, my dearly beloved (4:1).*

The heart of the apostle. He is bearing his heart now, his love for those who he ministered to and those who ministered to him. Now, there were a couple of women in Philippi who were having an argument, a fight. That's not becoming the church, so Paul said,

*I beseech Euodia (4: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4:1)

바울의 교회를 향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의 애뜻한 마음을 전하며,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같이 주 안에 서라. (4:1)**

이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사역을 했고 도움을 받은 이들에 대한 그의 애뜻한 마음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있는 몇몇 여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4:2)

And the s isn't there, it is just, the s would make it a masculine name, but in the Greek, unfortunately, it is a feminine name, Euodia,

*and I beseech Syntyche, that they be of the same mind in the Lord (4:2).*

Now, let's not argue, let's not fight, let's not create division within the body. Let's be of the same mind in the Lord.

*And I entreat thee also, true yokefellow (4:3),*

이름에 "S"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행이도, 헬라어에서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S가 있었으면 남성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2)

이제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한 몸 안에서 분쟁하지 말자. 주안에서 한 마음이 되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4:3)

Now, we don't know who Paul is referring to here. There have been a lot of guesses. Probably all of them are wrong. But the yokefellow would be one who had labored together. Maybe he was writing to the Philippian jailer who had been converted. There are some, I think it was Tertullium, one of the early church fathers, said he was writing her to his wife. But that hardly seems possible.

*help those women which labored with me in the gospel, with Clement also, and with other of my other fellow laborers,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4:3).*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추측이 있지만 모두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같이 한 자라면 함께 일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변화받은 빌립보 간수에게 썼는지도 모릅니다. 어떤이들 중에, 제 생각에 초대교회의 아버지인 터툴리안 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이들은 바울이 그의 아내에게 썼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3)

When Paul went to Philippi, he first shared the gospel by the river where a group of ladies had gathered together for prayer. Among them, Lydia, you remember, the seller of purple. And having shared with the women, the following week they told their friends, and a big crowd of people gathered to hear Paul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cause many of the women believed and were saved and baptized, and so the work of God really began with women, and they had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ministry in the church in Philippi. And so, "Help those women who labored with me in the gospel, with Clement also, my fellow laborers,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이들은 강가에 모여 기도하던 여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 가 있었습니다. 여성도들과 복음을 나눈 후, 그들이 친구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 모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여성들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In Luke's gospel, chapter 10, there is the report of the disciples who had been sent out by Jesus, two by two, the seventy of them. And they came back and they said, "Lord, it was fantastic. A lot of people were healed; people who were bli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Lord, even the devils were subject unto us." And Jesus said to them, "Don't rejoice in these things, but rejoice rather that your name is written in heaven." Hey,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o me that my name is written in heaven. Not in what God is done through my life, that is not so important is that my name be written in heaven. That's what is really important to me. God has a book of life. It is exciting to realize that my name is there in His Book of Life.

누가복음 10 장에 예수님께서 두명씩 파송하신 일흔 명의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님,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많은 병자가 낫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신까지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신 일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 때 너무도 흥분됩니다.

We read in Revelation 20 of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of God, "And the books were open, and the people were judged out of the things that were written in the book, and death and hell gave up their dead, and they were judged, and whosoever name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st into Gehenna and this is the second death." But there again, the mention of the Book of Life.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God has this book in heaven, the Book of Life, and the names of those who are heirs of the heavenly kingdom, ordained of God to share, and He has inscribed their names in the Book of Life.

우리는 계시록 20 장에 하나님의 큰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20:12-15) 흥미로운것은 생명책을 가진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임명된 상속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Now, when did God write my name in the Book of Life? When did He write your name in the Book of Life? You say, "Well, I was saved on October 2, 1968, so I guess God wrote my name in the Book of Life October 2, 1968." No! We read in the book of Revelation that our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How could He do that? Because He is God, and He is smarter than you are, because He is omniscient, He knows all things. And if God ever... well, because He knows all things, He can't learn anything.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요? 언제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요? "글쎄요, 내가 1968 년 10 월 2 일에 구원 받았으니까, 아마도 그때 생명책에 쓰셨을 것입니다." 아니요! 계시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의 기초가 있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모든것을 다 아시므로 새로 배우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earn anything. So, if God ever is to know who is going to be saved, He has always known who is going to be saved, and having always known those that were going to be saved, He wrote their names in the Book of Lif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ren't you glad? He knew you and wrote your name there before He ever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Whose names we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from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so those fellow laborers, Paul said,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Something that Jesus mentions, something that Paul mentions, something that John men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Now,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4:4).*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므로 새 것을 배우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 받을 아셔야 한다면 그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항상 다 아셨고, 또 누가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있었는지도 아셨기 때문에 땅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땅에 기초도 생기기 전에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했고, 요한도 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4)**

Again, notice the rejoicing is in the Lord. There is always cause for rejoicing in the Lord. I can rejoice because He wrote my name in His Book of Lif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Oh, thank you, Lord. I can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A sad, sour Christian is no real witness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Let your moderation be known unto all men. The Lord is at hand (4:5).*

다시 말하지만, 주안에서 기뻐라라고 하신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만세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할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슬프하고 언짢아 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4:5)**

That is, live moderately, don't live extravagantly. There's no place in the Christian life for extravagant living. Live moderately. Why? Because the Lord is at hand. Don't get too involved in the things of the world, the Lord's coming.

*Be careful [or anxious] for nothing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in every 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4:6).*

그 의미는 절제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치스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치스런 삶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알맞게 사십시오. 왜냐면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6)**

The answer for worry is prayer. Prayer and commitment, those things that concern me, those things that are prone to cause me to worry are the very things I need to be praying about. And once I pray about them, I need to just trust God to take care of them. I need to know that once I commit them to God, they are in His hands and He will work them out for His glory. Now, it may not be for my pleasure, it may not be like I want it to be, but I thank God I'm not in control. I thank God that He is in control of the circumstances that surround me. If I were in control of my life, I could make the worst mess of my life thinking that I was just doing what was good. But, you know, if you just let a kid go, they will just eat ice cream sundaes and nothing else. And so I would order my life, you know, make it sweet, make it delectable, put hot fudge and whipped cream on top and toasted almonds, you know.

염려에 대한 해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근심케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역사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소관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의 상황을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를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다른 것은 먹지않고 아이스크림만 먹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달콤하고 즐겁게 하기위하여 밀크 초코렛 에 크림을 얹고 그 위에 구운 알몬드를 곁들인것을 주만할 것입니다.

I want a bed of roses, Lord. I want to take it easy. But it doesn't always work out that way. Many times there are hardships, there are difficulties. There are things that I don't understand, but my faith is being tested, and my faith is being developed because I'm learning to trust in God even when I can't see the way. And though it doesn't fall the way I would like it to fall, I still trust the Lord and I learn that He has a better plan. Yes, it was tough, yes, I did hurt, yes, there was suffering. But ohhh the lessons that I learned that I wouldn't trade for anything, because I grew immensely and my walk and relationship with God has been enhanced by the whole thing. And I count that which I gained in my relationship with Him far more than the struggle that I went through.

주님, 전 안락한 생활을 원합니다. 저는 쉽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나의 믿음이 시험 당하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해도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신 줄을 압니다. 예, 힘들지요. 예, 상처도 됩니다. 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오, 내가 배운 교훈은 그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무한히 성장하고 나의 걸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을 내가 지나온 고난들보다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We used to hear down in the south that song, "Farther along we'll know all about it. Farther along we'll understand why. Cheer up, my brother, live in the sunshine. We'll understand it all by and by." It was written during the depression years, I think. Hard times down in the south. Song of encouragement.

They that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the Lord is going to be there. And the Lord will give you strength, and the Lord will help you. So, the worries, the concerns, the anxieties, pray about them, give them over to the Lord, cast all of your car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남부지방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 중에, "더 지나면 모두 알 수 있다. 더 지나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힘을 내어 햇빛 가운데 살자. 모든것을 차차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노래는 불황때 작사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남쪽에서 어려웠던 시절에 불렀던 격려의 노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하면 환난을 겪어야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 불안, 모두 주께 맡기고 그에게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so, with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three aspects of prayer. Prayer itself is very broad term that describes communion with God. Prayer is not a monologue; it is a dialogue. And it is important that we wait for God to speak to us, as well as to speak to God. So many people consider prayer a monologue. I want to go in and talk to God, and I do all of the talking, and when I am finished talking, I get up and leave. I never wait for God to respond or to answer.

그래서, 기도와 간구, 감사, 이 세가지가 기도의 요소들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친교를 묘사하는 아주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기도는 혼자 말하는것이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혼자 말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가서 할 말을 실컷 다하고, 끝나면 자리를 뜹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반응이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Through the years,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t God talk to me than I talk to God. I am convinced that what God has to say to me is far more important than what I have to say to God. And I have sought to develop that listening side of prayer. The communion, prayer is communion with God. Listening for Him to speak to my heart. Laying my heart out before Him, waiting upon Him, worshipping Him, loving Him, all a part of prayer. Another part of prayer is supplication: my requests, where I present to God those needs of

my life, those needs in the lives of those around me. The supplications are personal, but they can also go into intercession. So, there is request, and in the narrow sense, for my own needs, and then in the broader sense, for the needs of those around me, the intercessory prayer. And then there is that thanksgiving aspect of prayer.

세월을 지나,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듣는 기도를 발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며,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부분은 간구입니다: 나의 간구,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주위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중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좁은 의미에서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폭 넓은 의미로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아뢰므로 중보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Now, as we look at the Lord's prayer as a model,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and hallowed be thou name," you see it begins with the acknowledgment of God and the greatness and the glory of God. The name of God, hallowed be that name, reverend be that name. Petitions in a broad sens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even as it is in heaven." Petitions in a narrow sens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deliver us from evil." Praise, glory, thanksgiving,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So it begins with worship, it ends with worship, sandwiched in between, our petitions and intercession. And so, we find prayer, supplications,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unto God.

우리가 주기도문을 본보기로 삼고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인정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폭넓은 의미의 간구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좁은 의미의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경배, 영광, 감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경배로 시작하여 경배로 끝나며 중간에 간구와 중보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And the peace of God [the result of this will be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human]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4:7).*

You will experience such peace.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ell, I have prayed about it." "Yah, but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Well, I have already done it, I have prayed." "Yah, but you can't just pray; you have got to do

more than that." "Now God is going to take care of it. I have peace. It is in God's hands; I have turned it over to Him. I am not struggling with it anymore. I am not wrestling with the issues anymore; I have turned them over to God, and now I am going to rest in Him. I am going to have an experience." That peace that passeth human understanding, passes your own understanding. You can't understand how that you can feel such peace in the midst of such turmoil.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7)

여러분은 이러한 평강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 그것에 대하여 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전 벌써 했습니다. 기도 했더니깐요.” “알아요. 그러나,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실테니, 제 마음이 편해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넘겼지요; 그 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더 이상 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씨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분 안에서 안식하렵니다. 전 그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각과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 그러한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Finally, brethren, whatsoever things are true, whatsoever things are honest, whatsoever things are just, whatsoever things are pure, whatsoever things are lovely, whatsoever things are of good report; if there be any virtue, and if there be any praise, think on these things (4:8).*

That pretty well eliminates television, doesn't it? Of all of the mental pollution that is going out night after night over the major networks. Our whole nation is being polluted by the television industry and by the movie industry. I mean, it is leading the nation right down the tubes. Why? Because it is having people think on things that are impure, unholy, filthy, unrighteous, immoral, and there is other things we need to be thinking on. Sort of tragic, a lot of people watch television just before they go to sleep, because you plant that junk in your mind just before you drop off.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4:8)

그것이 텔레비전을 없애는것은 잘 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밤마다 주요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정신적 오염이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가 텔레비전업체나 영화산업체로 인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사람들을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더럽고, 옳지 않고, 부도덕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생각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비극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잠동사니들을 마음에 심고 잠을 자니 말입니다.

You know, I have found that what I plant in my mind the last thing at night before I go to sleep is something that sticks with me. I learned as a child that I can

memorize any poem by reading it over three times before I went to sleep. In the morning I could get up and recite it. Poems of several pages, all I do is read them over three times before I went to sleep, and in the morning I could recite them. Because it seems like during the night, what you plant just before you go to sleep has a way of your mind continuing to work on it.

제가 발견한 것은, 자기 바로 전에 마음에 둔 것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를 외우려면 잠들기 전 여러번 반복하면 외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장 되는 시를 잠들기 전 세번씩 읽으면 아침에도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 면이 되는 시도 자기 전에 세번 읽으면 아침에 그것들을 외울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바로 전 마음에 심어둔 것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And many areas across the United States we have begun our Word for Today broadcast on many stations now at 10:00 o'clock at night. And a lot of people have gotten in the habit of setting their clocks on the radios to, you know, from 10:00 to 10:30, then, you know, and I put them to sleep every night. What a wonderful thing. The last thing in the night to be planting in your mind: that which is pure, that which is true, that which is honest, that which is just, that which is lovely, that which is of virtue and good report, think on these things. Interesting how we like to think on other things, isn't it? The hurts, the disappointments, the nasty thing that he said to me. Here is a good model to follow, I think that somewhere around the house we ought to put up, "True, Honest, Just, Pure," that our minds, we gear them toward these things.

미국에 많은 지역에서 저희 교회의 “오늘의 말씀 (Word for Today)” 방송을 저녁 10 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라디오 시계를 10 시에서 10 시 30 분 으로 맞춰 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일 밤 그들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직하고, 무엇에든지 정의롭고, 사랑할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내게 욕한 것들 말입니다. 여기에 따를만한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집안 여러 곳에 “진실. 정직. 정의. 정결.” 이라고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말입니다.

*Those things, which ye have both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  
and seen in me (4:9),*

Paul the apostle, when he was talking with the elders at Ephesus, he said, "I was daily with you teaching you and showing you." It was show and tell with Paul. His life was the example of that which he was preaching, and so should it always be. It isn't just the proclaiming of the truth, it is the demonstration of the truth. And so Paul tells them, "Those things which ye have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 and you have seen in me, I set the example before you."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4:9)

바울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야기 할 때, “내가 매일 너희들을 가르쳤고 너희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보여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가르침의 본보기였고 항상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몸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아 드렸고 나에게서 듣고 본바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고 말했습니다.

*do [them]: and the God of peace shall be with you. But I rejoiced in the Lord greatly, that now at the last your care of me hath flourished again; wherein ye were also careful, but ye lacked opportunity (4:9-10).*

In other words, "You were anxious to send me some help, but you lacked opportunity. " Epaphroditus, you remember, had come to Rome, with a offering from the church in Philippi for Paul. And so, the care of him has flourished again. They sent him a very generous offering. They desired to do it before now, but, of course, he had been on his way from a Caesarea to Rome. He had been on that ship that was wrecked and spent a lot of time; they weren't able to catch up with him. But now, finally, that he is sitting there in prison in Rome, they are able to get to him again, and they send this offering. And so he thanks them that this care for him is flourished again.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4:9-10)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도우려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헌금을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 로마로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에 대한 보살핌이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정성어린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전부터 그렇게 하기를 소원 했으나,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오던 중이었고, 배가 침몰되어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그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게 되자 다시 그를 볼 수 있게 되어 헌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의 넘치는 보살핌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Not that I speak in respect of want (4:11):*

It is not that I really am, you know, desperately in need. It isn't that I have tremendous needs while I am here.

*for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be content (4:11).*

Oh, what a tremendous lesson we need to learn. Because always the state that we are in might not be the most pleasant state to be in. Paul was in prison when he wrote this, chained twenty-four hours a day to a different Roman guard, as they would make their changes. And yet, content. "For I have learned whatever state I am in to be content."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4:11)



내가 이곳에 있는동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가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4:11)**

이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입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상황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쓸때 바울은 24 시간동안 다른 로마의 경비병에게 쇠고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I know both how to be abased, and I know how to abound: every where and in all things I am instructed both to be full and to be hungry, both to abound and to suffer need (4:12).*

It doesn't matter to me; I can live with it, I can live without it.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ith it.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ithout it. Whatever state God sees to put me, I am content, because my life is in God's hands; He is in control of those things that surround me. He wrote,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riches." I have learned how to be content.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보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4:12)**

내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풍부에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가난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 놓으시든지, 나는 자족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쓰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고 했습니다.

*[For]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eth me (4:13).*

And there is the secret: I can abound, I can be poor,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In the fifteenth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as Jesus is talking about His relationship to His disciples, He said unto them, "I am the vine, ye the branches, my Father is the husbandman.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fruit, He washes it that it might bring forth more fruit. Now you are clean through the word which I've spoken unto you. Abide in Me, and let My words abide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except it abide in the vine, neither more can ye except you abide in Me,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13)**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풍족할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 장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과실을 맺나니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안에 거하게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Do you believe that? I didn't for a long time. The Lord had to prove that to me. I thought there was something I could do worthwhile in my flesh. And I tried too long to offer to God the sacrifices of my flesh. But one day, after years of struggle, I came to the truth of the statement of Christ and realized the truth of it, apart from Him I could do nothing. But thank God, in the same day I also learned the truth tha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And so, rather than being all wiped out because I can't do anything in myself, I rejoice because of what I can do in Him.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There are two verses I count extremely important in my own experience. Vitally important. To learn those two verses is vital to Christian growth.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Jesus said. But Paul said,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증명해 보여 주셔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육신에 있는 동안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랜동안 하나님께 육신의 제사를 드리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수년 간의 고생 끝에,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같은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두개의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이 두가지의 구절을 배우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와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Notwithstanding, ye have done well, that ye did communicate with my affliction [to my needs]. Now ye Philippians know also that in the beginning of the gospel, when I departed from Macedonia [Philippi was in the area of Macedonia], no church communicated with me as concerning giving and receiving, but ye only (4:14-15).*

When I left you, you were the only church. Now, there was a church at Thessalonica, Paul established the church of Berea. They didn't do anything for him. The only church that really sought to help Paul and support that ministry was the church of Philippi.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4:14-15)

내가 떠날 때에 너희 교회 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한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베레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필립보 교회만이 진실로 바울을 돕고 지원하려고 힘썼습니다.

*For even in Thessalonica [when I was there] ye sent once and again unto my necessity [to take care of my needs]. Not because I desire a gift: but I desire fruit that may abound to your account (4:16-17).*

I love that. Paul was thanking them for what they sent, "not because I desire a gift. I desire that fruit might abound to your account." Now, God has a very interesting bookkeeping system. And in God's bookkeeping system, your investments that you make in the kingdom of God bring fruit to your account. Jesus said, "Don't lay up for yourself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can corrupt and decay and thieves can break through and steal. But lay up for yourself treasures in heaven where these things cannot happen,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4:16-17)**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연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하나님은 아주 흥미로운 회계장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한 것은 열매로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19-21)

God accounts to the person who supports the missionary the fruit that comes from the missionary's service. How can they hear without a preacher? How can they preach except they be sent? So, those that send share equally in the fruit of the ministry of those who go. That is why in supporting a ministry, I want to be very careful what ministry I support. I want to make sure that it is an effective ministry, doing a good work for God. Because there is a lot of charlatans out there that are padding their own pockets and not really doing a real service for God.

하나님께서서는 선교사를 돕는 자들에게도 선교사의 봉사료 오는 열매를 그 사람의 통장에도 똑 같이 넣어 주십니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말씀을 들으리요? 보내는 자 없이 어찌 전하는 자가 있으리요? 그러므로 보내는 자도 보냄을 받은 자와 똑같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사역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역을 돕는가에 대해 저는 아주 조심합니다. 저는 그 사역이 효과적인 사역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는지를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We were in Goroka, New Guinea, a beautiful place, sort of an ideal place to live. Weather is perfect year around. And just up in the highlands in New Guinea just beautiful, beautiful streams, beautiful forest, beautiful place to live. And as they were taking us through there, they said there is just a lot of paper missionaries here. And I said, "Paper missionaries, what do you mean?" And he sai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have retired here in Goroka who get their support by writing letters to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England, sharing with them the ministry here among the New Guinea people.

우리가 뉴기니아의 고로카라는 곳을 방문 했는데 그곳은 아름답고 살기에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연중기후도 좋으며 뉴기니아에서 지대가 높은 곳으로 아름다운 강과 산이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안내인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곳엔 종이 선교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종이 선교사가 무슨 뜻인가요?”라고 반문하자, 이 곳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와서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지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뉴기니아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And what they do is, they get in their Land Rovers and they go out to the villages and they pass out candy to the children. And they will take pictures of the children reaching out for candy. And then they will send these pictures and letters back to the people and say, you know, "The children are reaching out for the New Testaments that we are passing out in the villages and all, and look at how, you know, all of the children, and all, had a tremendous response and God is doing a glorious work and all." And people are supporting them. Yet, they are just retired; they don't do anything but go out to the village once a month to take pictures of kids getting candy. Unfortunately, those people do exist. Frauds, charlatans, they'll have to answer to God.

그들은 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사탕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사진과 편지를 보내며, “이 아이들이 우리가 나눠주는 신약 성경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놀라운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스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퇴직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씩 마을에 와서 사탕을 받으려는 아이들의 사진이나 찍어 갑니다.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들, 사기꾼들은 하나님 앞에 설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uses a portion of their funds to support terrorist groups in Africa, supporting the P.L.O. their terrorism programs. A lot of missionaries were killed in Zabway by the terrorists, missionary children, by the dollars given in the churches that have a part in the National Counsel of Churches and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세계 교회협의회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는 아프리카의 폭도 단체인 팔레스타인 독립군 (P.L.O.) 의 하는 일을 돕는 목적으로 현금의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자녀들이 Zabway 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의 돈이 국내 교회협의회 (National Counsel of Churches) 와 세계 교회협의회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가 주었던 것입니다.

I wouldn't give a dime to any church that's affiliated with the World Counsel of Churches, knowing that a portion of that dime would be going to suppor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 don't want to be giving money to terrorists in Africa who are murdering missionaries and their families. Nor would I want to be supporting Angelia Davis's defense, which received a generous contribution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Careful where you invest. Paul said, "That fruit might abound to your account." Well, there is some kind of fruit that I really don't want to my account. And thus, I don't want to invest in that. I want to know that there is a valid and legitimate work being done, and that it is a fruit-bearing work, that fruit might abound. I want to support that kind of work.

And so Paul said, "Not that I desire a gift. I desire that fruit might abound to your account."

저는 제가 낸 돈의 일부가 세계 교회협의회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에 쓰여진다는 걸 안 이상 그 단체에 연관된 어떤 교회에게 단돈 10 전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제 돈을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살인자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국내 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의 후한 도움을 받는 안젤리아 데이비스 (Angelia Davis) 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곳을 잘 살피십시오. 바울은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만, 내 통장에 들어 오는것을 원치 않는 과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고 합법적인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고, 그러한 일이 열매맺는 일이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But [I have everything] I have all, I abound (4:18):*

Got plenty. What a beautiful thing to say even though you're broke. I have all, I abound. Why? Because I have Jesus. That's enough.

*I am full, having received from Epaphroditus the things which were sent from you, an odor of a sweet smell [Probably some cologne, I guess], a sacrifice acceptable, [and] well-pleasing to God. But my God shall supply all of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4:18-19).*

Isn't that a glorious promise? Take hold of it tonight. My God shall supply all of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Now who can measure that kind of riches? If God spared not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how much more than shall He not freely give us all things?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리라. (4:18)**

모든 것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합니다. 왜? 내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4:18-19)

이 얼마나 영광스런 약속입니까? 오늘 이것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여러분의 필요한것을 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셨는데, 얼마나 더 많은것을 아낌 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Now unto God and our Father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Salute [greet] every saint in Christ Jesus. The brethren which are with me greet you. All the saints salute you, chiefly they that are of Caesar's household (4:20-22).*

As Paul was chained to the Roman guard, those were Caesar's guards, and so many of Caesar's household send their greetings through Paul, who had received Christ because Paul's imprisonment ther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4:20-22)

바울이 로마 군병에게 묶여 있을 때, 그들은 가이사의 근위대이었고, 많은 가이사의 식구들이 바울을 통해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입니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all. Amen (4:23).*

Beautiful, beautiful epistle to the Philippians, and now the glorious epistle to the Colossians; next week, the first two chapters. The preeminence of Jesus Christ. Aw, this one just lifts you into glory as we behold Jesus Christ our Lord, and we see the preeminence that God has given unto Him. The preeminence of Christ. The book of Colossians, one that will enrich us so completely as we study it together.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찌어다. (4:23)

정말 아름다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영광스런 골로새서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실 때,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위대함을 우리가 봅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는 우리를 완전히 풍성하게 만들것입니다.

And now may God cause you to abound in love and in your walk in the Spirit. And may indeed you find the promise to be true as God supplies all of your needs: spiritual, financial, physical,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our Lord. God bless and keep you and give you a beautiful week. In Jesus' name.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성경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는 약속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아름다운 일주일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